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구월동지점 거래고객  
철은인터내셔널(주) 이은자 대표

##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대불공단지점 거래고객  
성문(주) 이재홍 대표

“볼트 하나로 모두의 삶을 바꾸자”

산업용 볼트 제조 기업 S사

“빛으로 일상을 지킨다”

LED 살균 조명 개발 R사

“자율형 로봇 기술로 인간을 자유롭게”

완전 자율화 로봇 개발 P사

이 땅의 모든 기업이  
그 사명을 다 이루도록

세상을 움직이는 기업. 그 옆에



IBK기업은행

04



04 여성시대 특집

행복해도 괜찮은 당신에게

10 이달의 편지

‘나도 꽤 여행을 다녔네요’ 외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철은인터내셔널(주) 이은자 대표

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성문(주) 이재홍 대표

80 코너 속 편지

‘중소기업 만년 과장’ 외

110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그랬으면 했는데

112 김일중의 스튜디오에서

2026년 새해 다짐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 여성시대

발행일 2026년 1월 10일 발행인 ㈜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중 프로듀서 박정언, 이용선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http://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에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콩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여성시대 특집



행복해도  
고민찮은  
당신에게





드디어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날 새 기분 새로운 희망으로 마음을 뽕뽕하게 부풀리고 싶은 날들입니다. 여성시대는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시대 가족들과 함께 뜻깊은 한 해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여성시대는 올해 51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달 방송 50주년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다짐과 약속을 준비하며 여성시대 가족들을 모시고 공개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여성시대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 ‘행복해도 괜찮은 당신에게’를 당당이 합창단과 함께 부르는 자리는 마음의 울림이 큰 감동의 자리였습니다. 음악감독을 맡아주신 하림 님과 녹음 현장을 진두지휘한 김현보 님이 몸담고 있는 밴드 ‘두 번째 달’이 무대를 가득 메워주셨습니다. 또 매주 수요일 우리들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시는 성진 스님, 김진 목사님, 하성용 신부님이 즉석에서 여성시대 가족들의 근심 해결도 해주셨습니다. 객석을 가득 채운 여성시대 가족 중 어떤 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회사를 빠지고, 가게 문을 닫고 오시기도 했습니다.





공개방송 마지막 순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행복해도 괜찮은 당신에게’ 합창이었습니다.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이 되면 당당해질 거야 더 나아질 거야 나에게 사랑한다고 꼭 말할 거야~’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행복해도 괜찮은 여성시대 가족 여러분,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진 | 송인혁







MBC 라디오 <여성시대> 50주년 기념 필사집



# 라디오로 듣던 위인의 편지들 손 글씨로 써보는 시간



## 우리 삶이 시가 될 때

양희은, 나태주,  
박준, 잔나비 최정훈  
추천 도서



여성시대 지음 | 272쪽

MBC 라디오 <여성시대>에 전해온 수십만 통의 편지 중  
마음을 움직인 100편의 '인생 문장' 필사집

'당당이' 청취자의 편지부터 박완서, 나태주, 양귀자 등 명사의 글귀까지

김영사





- |    |               |    |                  |
|----|---------------|----|------------------|
| 12 | 나도 꽤 여행을 다녔네요 | 39 | 산호 반지 진주 반지      |
| 16 | 천국에서 보낸 연탄    | 42 | 인생 학교 여성시대       |
| 20 | 아이의 말 한마디     | 46 | 모두 잘 되었으면        |
| 22 | 사과의 추억        | 51 | 48년 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
| 27 | 사돈과의 데이트      | 56 | 저는 김충열입니다        |
| 30 | 생일날 아침에       | 60 | 나이 들수록 품위 있게     |
| 34 | 빛나는 줄업장       |    |                  |



일러스트 | 조신애

## Letter 01

# 나도 꽤 여행을 다녔네요

애청자



세계 곳곳을 여행 다니고 있는 친구가 내년에는 남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단다.

‘아이고, 거기가 어디라고~ 그 먼 데를! 그런데 좋겠다!’

대단하다 싶다가 부러워지다가 갑자기 킁킁 소리 내어 웃었다. 그리고 나에게 말해주었다.

“너도 참 여행 많이 다녔잖아. 여러 직업으로 여행!”

나는 직업의 세계도 어떻게 보면 여행이 아닌가 싶다. 길게는 10년, 짧게는 석 달, 많이도 다녔다.

가장 오래 다닌 곳은 국가기관에서 10년이다. 명예퇴직을 신청 받을 때 1등으로 가서 신청했다. 집에서 아이나 키우고 수영이나 다니면서 편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나는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벽에 머리를

쿵쿵 찼었다. 그래도 아이 하나 더 낳고 살림에 재미를 붙이고 동네 아줌마들하고 이집 저집 몰려다니며 나름대로 즐겁게 보냈다.

그런데 둘째가 10살이 되던 해 갑자기 남편이 저세상으로 가버렸다. 경력 단절인 내가 가장이 된 것이다. 어허~ 아이들 때문에 오래 누워있을 수도 없어서 정신 개조를 위해 새벽에 우유 배달을 시작했다. 아침잠 많던 내가 정말 신기하게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단지 한 바퀴를 돌았다. 6개월 했다. 그 후로 나는 우유 배달을 그만두고도 아침형 인간이 되었다. 기억나는 게 방학 때면 아들이 우유 배달을 함께해 준 일이다. 아들도 나도 아무 말 없이 배달했다.

그리고 구청에서 주도한 독서치료사 과정을 공부하고 인근 학교 도서관에서 근무했다. 8개월 했다. 아이들이 책 빌리러 오기 보다 나랑 놀자고 도서관에 왔다. 그 시절도 재미있었다. 사서 자격증이 있으면 사서로 일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야간 대학원에 다녔다. 그때 나이가 마흔둘이었네. 막상 자격증이 있어도 취업은 쉽지 않았다. 공공도서관에 단기간 취업한 후에는 인근 공공기관에서 8개월 근무했다. 거기 담당 공무원 중에 살모사와도 같은 기간제 백여시가 있어서 갈굼을 당했는데 어느 날 아침 밥상이 아직도 기억난다. 그날 아침 딸이 말했다.

“아~ 학교 가기 싫다!”

그러자 아들이 이어받았다.

“진짜 학교 가기 싫다!”

조용히 내가 한마디 했다.

“이 엄마보다 가기 싫겠냐?”

자식들은 조용히 학교에 갔다.



그러다가 형부 사무실에서 경리로 6년을 일했다. 형부는 조그마한 골재 사업을 하셨다. 그 시절 최고의 기쁨은 비 오면 일찍 사무실을 닫고 땡가땡가 하면서 영화 보러 가는 거였다. 그래서 장마 기간이 기다려졌다.

그러다 형부가 일을 접어서 잠시 백수가 되었다가 지인의 소개로 학습지 교사를 하게 되었다. 진입 문턱이 낮은 이유가 있었다. 이 일은 가르치는 일보다 영업이 우선이었다. 아이들하고 수업하는 건 재미있건만 늘 영업이 문제였다. 아니, 수학 숙제도 밀리는 판인데 우째 국어 과목을 추가한단 말인가. 그래도 그 일도 6년간 했다. 사무실 벽 그래프에 나는 밑바닥에 있었지만 그 시절도 좋았다. 늘 불안해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손잡아주며 위로해 드렸고 기죽은 아이들에게는 영차영차 용기를 주려고 애썼다. 공부도 적성인데 다른 일을 잘하는 아이들인데 왜 이리 다들 난리인가 싶었다. 지금 생각하면 회사에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다. 덕분에 한 시절 잘 보냈다.

학습지 교사를 그만두고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맘 편히 살자!’고 다짐했지만 내 태생이 또 그런 인간이 안 되는지라 여기저기 기웃대다 도시락 업체에서 3개월 동안 일했다. 사장님이 그랬다.

“살림을 안 살아보셨나 봐요?”

그 뒤 골프장 매점에서도 6개월. 슬슬 경치 구경하고 일도 힘들지 않아 딱이다 싶었는데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잘렸다.

당시에는 코로나를 집으로 물고 온 딸이 야숙했지만 희한하게도 다음 직장은 심심풀이로 지원해 본 ‘작은 도서관’이었다. 참 인생은 묘하다. 도서관에서의 3년은 꿀맛 그 자체였다. 여기도 계약이 이달 말로 만료된다.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리고 보니 한 달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구나.

이 일 저 일로 다양한 여행을 다녀보니 깨닫는 것도 많고 느끼는 것도 많다. 세상이 학교인 것이다. 내년이면 쉼여덟이다. 나의 여행 갈망은 아직 싱싱하다. 자식들은 일찌감치 경제적 독립을 했다. 열심히 산 나에게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 아닌가 싶다. 오늘도 여기저기 새롭게 여행 갈 곳을 기웃댄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서!

## Letter 02

## 천국에서 보낸 연탄

이태희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



그들이 떠났다. 나는 햇살이 잠시 머문 계단 끝에 앉아 마당의 감나무를 올려다본다. 가끔 계단 끝에 앉아 있으면 할머니는 가만가만 2층의 계단을 내려와 내 곁에 털썩 앉았다. 나는 뜨거운 커피 두 잔을 내와 커피 속에 수다를 녹여 마시며 마당의 꽃들을 함께 바라보곤 하였다.

노부부는 잠시 여행이라도 떠난 듯하다. 현관문을 밀치고 금방이라도 그들이 걸어나올 듯하다. 우린 같은 지붕 아래에서 오롯이 몇 년의 삶을 버텼다. 어제와 같은 날이 지나면 오늘이 되었다. 하지만 노부부의 오늘은 더 이상 지나가지 않는다. 어제는 돌아갈 수 없는 날들이 되어버렸고 마음속의 그리움을 부풀린다.

그들이 오랫동안 세 들어 살던 집이 재개발되면서 늘그막에 이사하게 된 곳이 우리 집 2층이다. 주택의 2층은 아래층보다 여름



엔 꽤 덥고 겨울엔 상당히 춥다. 노부부에게 주택의 겨울 추위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으리라.

이사 와 한 해를 살더니 이듬해 겨울, 거실에 난로를 놓았다. 두 사람의 살림에 기름 난로는 연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고 연탄난로를 설치한다고 했다.

요사이 연탄을 때는 집은 적다. 웬만한 산동네도 기름보일러를 쓴다. 연탄을 사는 것보다 배달해 줄 가게를 찾는 게 쉽지 않다.

노부부의 겨울나기에 중요한 장소인 연탄 창고는 2층의 계단을 올라가 거실 입구에 있다. 연탄을 몇 장씩 등에 지고 2층 계단을 올라가 창고에 쌓아야 했다.

늦가을 어느 날 연탄을 실은 트럭이 마당으로 들어왔다. 노부부는 연탄을 창고에 다 쌓을 때까지 괜히 이곳저곳을 기웃거린다. 노쇠한 몸이 미안한지 연탄 배달의 수고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고마워했다. 한꺼번에 몇백 장을 배달시켰다. 오랫동안 이 집에서 함께 겨울을 나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다.

나는 그때 노부부가 걱정됐다. 두 사람이 연애결혼을 했다지만 연탄을 수시로 갈아줄 다정한 영감님은 아니지 않은가. 몸이 약한 할머니가 매번 연탄구멍을 맞추고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하는 숙제를 할 게 뻔하다.

나도 신혼 때 수없이 꺼트린 연탄불이다. 시간에 맞춰서 갈지 않아 자주 불을 꺼트렸다. 맛별이하는 우리에게 연탄불을 지키는 건 큰 숙제였다. 옆집 아줌마는 어설픈 새댁에게 별걸게 달아오른 연탄을 수시로 빌려주었다. 세월이 흘러도 겨울이면 그 따듯한 이웃의 정이 생각난다.

노부부는 겨울이 시작되기 전 창고 가득 쌓인 연탄으로 마음

이 든든해졌다고 했다. 2층 거실은 난로가 있어서 햇살보다 더 따뜻하고 포근해 보였다. 난로 위에는 겨울 간식이 올려져 있는지 군고구마와 군밤 냄새가 아래층까지 퍼져 입맛을 다시게 한다. 때론 오래 끓일수록 깊은 맛이 느껴지는 사골 내음과 생강차를 달이는 짙은 향이 아래층까지 전해졌다.

그랬던 그들이 그렇게 황망하게 떠날 줄은 몰랐다. 겨울이 시작되기 전 폐렴으로 할아버지가 떠나고 연이어 시름시름 앓던 할머니도 떠났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니 삶의 흔적을 남긴 유품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노부부의 자녀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전화벨 소리는 멈추지 않는다. 서리 맞은 풀처럼 된 나는 딸에게 다시 연락을 해본다. 대답 없는 벨 소리가 귓전에 웅웅거리고 기운이 빠진다. 한참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제가 텔레비전과 세탁기 가져가고 냉장고 두 대와 에어컨은 동생이 가져간다고 하네요.”

“네, 집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의 죽음으로 집 한 채 분량의 유품이 생겨났다. 자식들은 쓸만한 물건들만 챙기고 부모님의 추억이 담긴 물건엔 관심도 없어 보였다. 노부부의 전세 기한이 아직 남아 있지만 나는 이참에 집을 개축할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자식들은 기한 전에 집을 비워줄 테니 대신 부모님의 남은 물건을 다 버려 달라고 부탁했다. 부모님의 짐을 버리려는 자식들에게 화가 났다. 물건 하나하

나 가치와 의미가 있음에도 부모님과과의 추억들을 모두 잊으려고 하는 자식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고구마를 먹다 목이 막힌 듯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삶이 이토록 허망할 수 있을까.

노부부가 남긴 게 모두 쓰레기는 아닐 게다. 쓸 수 있는 걸 찾아 본다. 연탄이다! 통장님에게 주변에 연탄을 때는 독거노인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며칠 후 드디어 연락이 왔다.

자식이 가져가지 않는 물건 중 노인들의 생애 같은 연탄이 창고 가득하다. 검은 몸이 하얗게 될 때까지 불태워 온 삶이 아닌가. 다 타고 난 뒤에는 쓸모없고 버릴 곳도 없다고 하소연하는 쓰레기가 되어버렸다. 아니다. 눈이 내린 겨울날, 우리 집 앞 오르막 비탈에 할머니는 다른 사람이 미끄러질까 봐 다 태운 하얀 연탄재를 뿌려주었다. 삶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할 일이 남아 있다.

계단을 오르면 노부부가 걸어온 아지랑이 같은 삶이 보인다. 차곡차곡 쌓여 온 세월의 조각들, 그 안에 기쁨과 슬픔 모두가 강물처럼 흐른다.

연탄을 배달 중이다. 천국에서 보내온 노부부의 연탄이 줄지어 배달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머물다 떠난 자리 앞에서 허리가 구부정한 이웃의 노인네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연탄구멍마다 고인이 살았을 때 나누었던 따뜻한 정이 보인다.

노부부의 귀중한 유품이 사라지는 모습을 열심히 지키고 서서 바라본다. 한 번에 네발이 달린 집게에 매달려 2층 계단을 내려오는 연탄의 행렬이다. 봄이 멀지 않았는지 내 가슴도 따뜻해진다.

## Letter 03

## 아이의 말 한마디

김유진 | 경기도 광주시 광주역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매일이 분주하고 정신없지만 가끔은 그 모든 수고가 싹 잊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아이가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웃음이 터지고 마음이 말랑해질 때가 많아요.

어른인 저와는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서인지 듣고 있으면 괜히 저까지 동심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곤 합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가 했던 말 중 기억에 남는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려고 해요.

하루는 탄산수의 기포가 올라오는 걸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물이 알을 낳고 있어요.”

단풍잎을 잔뜩 모아 와서는 “엄마, 내가 가을을 모아왔어요” 말



합니다.

구겨진 제 옷을 보고는 “엄마, 옷이 다 찌그러졌네.”

집 근처 공수부대에서 낙하 훈련을 하는데 비행기에서 낙하산이 무더기로 떨어지는 걸 봤을 땐 다급하게 “엄마, 비행기가 해파리를 다 버리고 갔어요.”

놀이터 테이블 위에 올려둔 동화책이 바람에 책장이 넘어가자 “엄마, 바람도 책을 읽나 봐요.”

개미를 오랫동안 쫓아다니다 구경하다가 일어섰을 땐 발이 저렸는지 울먹이며 “엄마, 내 발이 너무 반짝반짝해.”

화장실에서 응가를 하고는 “아빠 똥, 아가 똥이 같이 나왔어!” 하고 깔깔거렸다.

할머니 밭에서 고추를 따다가 제가 빨간 잠자리를 보고 “이건 고추잠자리야~”라고 알려주니까 “엄마, 고추잠자리도 매워요?” 하고 묻더군요.

아빠 겨드랑이를 보더니 “아빠 머리카락이 다른 곳에 집을 지었네”라고 한 적도 있어요.

아이가 내뱉는 이런 표현들은 그저 웃기고 귀여운 말 같으면서도 사실은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특별한 시선 같습니다.

그런 아이 덕분에 저도 잠시나마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서 하루가 더 따뜻해집니다.

## Letter 04

## 사과의 추억

정이식 | 경남 진주시 하대로길



“이런 또 셋길로 들어섰네.”

늦음은 정신도 앓아간다더니 이놈의 1톤 트럭 포터는 오후에만 세 번이나 헛길로 들어섰다. 내비게이션을 틀어놓아도 소용이 없다.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횡수도 헤아리지 못한다.

뻔히 보고도 제 길로 가지 않는 길치의 최고조가 진행형이다. 진주로 가려면 좌회전해야 하는데 이정표를 바로 보면서도 앞선 차량을 따라 직진을 하였다. 다시 돌아가면 될 일이지만 자신의 행동에 이글거리는 분노가 일어 그대로 진행하였다.

“그냥 가자. 시간은 더 들겠지만 돌아간다고 달라질 상황도 아니고.”

마음을 다독이며 차를 돌리지 않고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를

따라갔다. 구부러진 옛날 길을 달리며 치매 전조 증상이 아닌지 걱정되는 어두운 마음을 던져버리려 커다란 가로수와 우거진 숲으로 둘러싸인 거창 시내로 눈을 돌렸다. 길가의 가판대엔 사과가 널려있고 저녁노을이 내려앉은 풍경은 눈이 시려서 바로 바라볼 수가 없다.

시내로 들어갈수록 사과가 어디건 천지로 깔렸다. 붉고 윤이 나는 저 사과는 홍옥이다. 사과는 홍옥하고 부사밖엔 모르지만 홍옥은 요즘 거의 보기 힘든데 거창은 아닌가 보다. 보기만 했는데도 목젓으로 침이 넘어간다.

사과의 원산지는 대구로 알고 있다. 조선 말기 외국의 선교사에 의해 대구에 처음으로 사과가 심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관리 소홀로 다 죽고 동촌의 모래밭에 심은 사과나무 한 그루만 살았다니 이 사과의 씨앗으로 전국에 사과가 퍼졌다. 이름도 모래밭에서 난 과일이라 해서 사과. 사과의 ‘사’자는 한문의 모래 사(沙) 자에서 따왔다고 알고 있다.

홍옥은 부사보다 일찍 수확하니 지금이 제철이다. 거창 사과 홍옥을 바라보니 가슴 깊은 곳에 숨어 있던 37년 전의 애잔한 추억 하나가 꿈틀거리며 살아난다. 37년. 내가 햇수를 잊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다.

언제였던가. 결혼하고 진주로 이사 와서 말 그대로 수저 두 개와 술단지 하나만 들고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였다. 이층 올라가는 계단 밑에 허술하게 지어진 부엌도 없는 단칸방에 아내와 사글세로 살았다. 쥐꼬리만 한 봉급도 반으로 잘라 적금을 붓던 시절이었으니 생활의 궁핍은 말이 아니었다.

그날은 거창 가조 저수지 공사장으로 1톤 차를 몰고 직장 일 때

문에 가던 길이었다. 지금처럼 거창은 온통 홍옥으로 뒤덮여 있었다. 저녁 해거름에 배도 고파왔지만 사과를 보자 아내 얼굴이 떠올랐다. 며칠 전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아내는 사과 타령을 했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 나는 뻔히 알면서도 주머니를 뒤적였다. 돈이 있을 턱이 없었다. 씹쓸히 배고픈 웃음을 지으며 가조로 차를 돌렸다.

가조에서 일이 늦어져 진주로 다시 출발할 때는 밤이 한창이었다. 가조에서 거창으로 나가려면 기다란 고개를 넘어야 했다. 그때의 길은 말 그대로 신작로여서 온통 자갈밭이었다.

차도 낡아서 마구 달릴 수가 없어서 천천히 고개를 올라가는데 고개 중간쯤에 양복 입을 신사가 전조등 불빛을 보며 손을 흔들었다. 태워주라는 표시였다. 가까이 가며 보니 남자는 술이 억수로 취해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못 본 척 그냥 지나쳤다. 술 취한 사람 태워서 이득 될 것이 없기 때문이었다.

지나가며 후사경으로 보니 남자는 차가 멀어지는데도 자꾸 손짓을 했다. 행색을 보니 그럴듯한데 택시를 타지 왜 고개를 걸어갈까? 마을은 고개 첫머리에 있고 다음 마을은 고개가 끝나야 있다. 처음부터 건지는 앓았을 터인데 무슨 사연이 있을까? 저 속도로 거창까지 날이 밝아도 도착 못 할 것을 그도 잘 알 터였다.

‘이 시간에 더 이상 지나가는 차도 없을 텐데.’

나는 한참을 생각하며 올라가다가 차를 세웠다. ‘남자를 태워주리라!’ 결심하고 후진을 하였다. 당연하지만 남자는 반색을 하며 차에 올랐다. 얼마나 마셨는지 남자가 올라타자 술도가에 든 것처럼 술내가 차 안에 진동하였다.

“택시를 타든가 하시지. 많이 취하셨는데 어떻게 고개를 넘어가 시려고요?”

훈계조로 말하자 연방 고맙다며 머리를 주억거리던 남자가 말문을 열었다.

“내가요. 거창농협에 근무하는데요. 저 아래 마을이 내 처가입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는 술기운에 혀가 꼬부라져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다.

남자는 농협의 일을 보러 나왔다가 처가 마을에서 처남을 만났다. 처남과 늦도록 술타령하다가 막차를 놓쳤다. 택시를 불러 탈 수도 있었지만 마침 그 마을의 청년이 오토바이로 거창에 간다고 해서 부탁하니 태워준다기에 냉큼 뒷자리에 올라탔단다. 그리곤 달리는 오토바이 뒤에서 술주정을 하였다.

“너 몇 살이나? 내 막내처남하고 비슷하네. 그런데 좀 살살 가라. 다치면 네가 책임질 거냐?”

이런 식의 주정을 끊임없이 해댄 통에 청년은 화가 잔뜩 나서 고개 중간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남자를 내리라 하였고 남자는 자존심에 청년에게 냅다 욕을 퍼붓고는 오토바이에서 내렸단다.

그리곤 후회가 막심했단다. 오토바이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졌고 갈 길이 구만리인데 걱정이 태산처럼 밀려왔다. 속절없이 밤은 깊어 가는데 집도 절도 없는 곳이어서 구조 요청을 할 수도 없었다.

간간이 차는 지나가지만 휘청거리는 남자를 태워 줄 리가 만무했고 서리가 내리는지 한기까지 몰려와 이리다 동태가 될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상황까지 머릿속을 휘젓는 그야말로 초주검이 되



어가던 중 내가 구세주로 등장한 것이다.

“우리 집이 거창인데요. 기사님~ 내가 이 고마움을 어찌 갚을꼬. 길옆이 우리 집입니다. 거창은 사과와 고장이 아닙니까. 내가 사과 한 보따리 적지만 성의로 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말 안 해도 나는 집까지 태워주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사과 말이 나오자 이상하게 나의 심장이 가쁘게 뛰었다. 임신한 아내가 생각나서였다. 남자는 집에 도착하자 자고 있던 아내를 깨워서 나에게 인사를 시키고 사과를 나무상자에 수북이 담아 흐르지 않도록 신문지로 덮고 끈으로 묶어서 차에 얹어주었다.

진주 집에 도착하니 자정이 훨씬 넘었다. 아내는 안 자고 있었다. 사과를 들고 오는 나를 보자 아내의 입이 함지박처럼 벌어졌다. 사과를 얻게 된 동기를 듣고는 기분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잖아도 사과 먹고 싶었는데 홍옥이네! 참 예쁘게 생겼다. 뽕송뽕송하니.”

아내는 사과가 아까워서 베어 먹지 못하고 요리 굴리고 조리 굴리며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듯 행복해하였다.

이듬해 우리에게 행복 덩어리인 첫딸이 태어났다. 그 딸애가 올해 37세다. 내가 그때의 헛수를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작년에 결혼한 딸애는 그때의 제 엄마처럼 지금 임신 중이다. 어찌면 딸애도 사과가 먹고 싶을지 모른다. 나는 튼튼하고 잘 생기고 뽕송뽕송한 홍옥 한 상자를 서슴없이 샀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거창의 온 하늘이 사과처럼 붉게 물들어있다.

## Letter 05

## 사돈과의 데이트

양계화 |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저는 작년에 아들을 결혼시킨 1년 차 새내기 사돈입니다. 사돈댁은 서울, 나는 지방. 비슷한 연배에 이야기 나누는 것도 즐겁고 유쾌하신 분들이라 안부 전화도 가끔 나누며 아이들 흉도 같이 보는 아직은 가깝고도 먼 그런 사이입니다.

얼마 전 제가 좋아하는 그룹의 콘서트가 있어 서울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집과 사돈집이 가까이 있는 덕분에 김치며 반찬 등 먹는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을 제가 신경 쓰지 않게 사돈댁에서 다 해주고 계십니다. 늘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터라 뵙고 싶기도 하고 음악 취향도 비슷하신 것 같아 콘서트에 초대했습니다. 끝나면 막차 시간이 맞지 않아 아이들 집에서 자고 오기로 했던 터라 기왕이면 함께 공연 관람 후 같이 가서 주무시면 어떻겠냐고 여쭙더니 좋아하셨습니다.



당일, 공연장 좌석이 따로 앉게 되어 혼자서 낯선 노래와 분위기에 어색하실까 싶어 걱정했는데 웬걸 중간 인터미션 시간에 자리에 가보니 근처 계신 분들하고 간식도 나누고 즐겁게 얘기하시는 모습에 안심이 되고 좋았습니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아름다운 화음이 주는 노래와 멘트에 신나게 웃고 스탠딩 구간에서는 떼창에 애절한 노래에는 감동으로 눈물이 맺히며 울고 웃다 하다 보니 시간 순식, 공연 종료였습니다. 사돈과 나란히 지하철역으로 가면서 공연이 주는 행복함과 들뜬 마음으로 우리는 소녀가 되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길이 참 좋았습니다.

아이들 집에 도착해서 간단히 술 한잔을 나누며 오늘 공연 얘기를 하다가 사돈에게 어떤 곡이 좋으셨냐고 여쭙더니 얼마 전 모 방송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양희은 샘의 ‘꽃병’을 그날 포레스텔라가 불러주었는데 그 노래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펼쳐져서 너무 좋으셨다고 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거든요. 좋은 걸 함께 좋다고 하니 오늘 나의 초대가 더 빛을 발한 것 같아 제 마음도 동실동실 떠올랐습니다.

친구들에게 사돈 초대로 공연 간다고 자랑하고 오셨다면서 좋은 공연 보게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며 즐거워하시니 제 마음도 마냥 좋아 밤이 늦도록 희은 샘의 ‘꽃병’과 포레스텔라의 ‘꽃병’을 안주 삼아 무르익어가는 밤이 되었습니다.

사돈과 잠잘 준비를 하며 이부자리를 펴는데 아들이 슬그머니 오더니 “장모님은 안에 들어가서 재은이와 주무세요. 저는 어머니랑 잘게요” 하는 게 아닌가. 이 녀석들 따스한 마음에 오랜만에 아들하고 나란히 누워서 자는 호사까지 누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이들은 출근하고 우리 둘은 쇼핑도 하고 점심도 먹고 차도 마시며 친구가 되어 세상 사는 이야기도 나누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여러 인연이 있지만 각자의 자녀들이 만나 또 다른 구성원이 된 우리 사이도 참 귀한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든든한 어른으로 남을 수 있게 노력해야겠지요. 가깝고도 먼 사돈에서 조금은 더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아 즐겁고 보람찬 서울 나들이가 되었습니다. 사돈~ 올겨울에도 대게 드시러 동해에 놀러 오세요~♡

## Letter 06

## 생일날 아침에

애청자



저는 원주에서 아이 둘을 키우며 살고 있는 51세 워킹맘입니다. 저는 남편, 고등학생 첫째 그리고 초등학생 둘째까지 총 세 명의 남자와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껏 가족들 생일을 잘 챙겨줬고 꼭 생일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축하할 일이 생기면 케이크를 사서 깜짝 놀라게 해 주는 이벤트를 자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 세 남자는 자꾸만 제 생일을 깜빡깜빡 잊어버리네요. 하도 잊어버리니까 냉장고에 붙어 있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두고 최근에는 생일 며칠 전부터 엄마 생일 까먹지 말라며 재차 알려주곤 했어요. 엎드려 절 받기 식이지만 그게 낫겠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생일에는 달력에 체크만 해두고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시다. 작년부터 갱년기 증상이 심해지면서 며칠



전부터 예고하는 것도 귀찮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알고 있겠지!’ 생각했어요. 특별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생일날 아침에 미역국은 끓여줄 거라 기대하며 기다렸죠. 그런데 제 생일인 일요일 아침 7시에 눈이 떠지기에 안방에 누워있는 채로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데 8시, 9시, 심지어 10시가 되어서도 우리 집 세 남자는 계속 잠만 자더라고요. 몰래 나가서 미역을 물에 담가놨나 봤더니 냄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순간 불길한 예감과 함께 짜증이 활화산처럼 끓어오르는 걸 애써 눌러 참았어요. 오전 11시가 다 되어서야 아홉 살 아들이 안방으로 와서 품 안에 안겼고 저는 아이에게 “오늘 엄마 생일인데 아빠랑 너희들 모두 모르는 거 같아서 엄마가 조금 서운해”라고 했더니 “설마 아빠가 모르겠어? 아빠는 알겠지~” 그러더니 아이가 남편 쪽으로 가서는 둘이 무언가 속닥속닥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거실이 시끌시끌해지기 시작했어요. 정황상 남편은 정말로 제 생일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아이의 귓속말에 번개를 맞은 듯 일어나 상황을 수습하는 것 같았죠. 곧이어 남편이 눈곱도 떼지 않은 채로 헐레벌떡 나와서 갑자기 쌀을 씻고 냉동실에 제가 얼려두었던 곰탕을 끓이기 시작하는 거 있죠. 설마설마했는데 진짜 제 생일을 잊어버린 남편의 뒷모습이 너무 꼴 보기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갱년기 증상인지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거예요.

30분 후 남편이 “여보 아침 먹자~” 하길래 “애들이랑 먹어. 나 바람 좀 쐬고 올게”하며 차 키를 들고 무작정 집을 나와 버렸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진정 안 되더라고요. 아들들 키우며 열심히 직장 다니고 내조하며 살았는데 가족들에게 제 존재감이 너무

없다고 느껴져 속상했던 거 같아요.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하찮게 느껴지면서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네요. 울음을 그친 후에는 차를 몰고 목적지도 없이 이리저리 드라이브하다가 오후에 꾸역꾸역 다시 마음을 다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이 와락 튀어나오면서 꽃다발과 편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과자를 담은 선물 박스를 주더라고요. 다 같이 “엄마, 생일 축하해~” 인사하는데 고맙다는 말 대신 “엄마 진짜 속상했어. 집에 안 들어오고 싶었어”라는 말을 툭하고 뱉어버렸어요. 아이들은 깜빡 잊은 거라며 내년부터는 엄마 속상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케이크와 미역국 그리고 갈비찜까지 세팅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집을 나간 걸 보고 부리나케 마트와 베이커리를 다녀와 준비했을 남편에게 고마움이 느껴졌어요. 평소시에도 말이 없고 마음이 착한 사람인데 아침부터 가출한 저 때문에 얼마나 신경이 쓰였을까 생각하니 마음 한켠이 또 짠해지더라고요.

나이 들어가면서 작은 일에 서운함이 켜켜이 쌓이는 게 조금은 속상합니다. 제 마음대로 기분을 컨트롤할 수 없으니 자꾸 화가 올라오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게 돼요.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남편과 아이들 얼굴을 보니 조금씩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깟 생일이 뭐라고, 왜 아침부터 그렇게나 속상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편은 우리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케이크에 초를 켜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남편이 끓인 미역국과 갈비찜으로 늦은 점심을 맛있게 먹었어요. 미역을 달달



볶지 않아 물컹한 미역국에 기름기도 제대로 손질 못 하고 모양만 그럴싸한 갈비찜이었지만 세상 유명한 셰프가 만든 음식보다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밥상이었습니다.

앞으로 생일을 몰라준다고 가출하는 건 하지 말아야겠어요. 막상 나가보니 딱히 갈 곳도 없더라고요. 그깟 생일 괜히 속상해하지 말고 앞으로도 그냥 미리 알려주면 되는 거겠죠.

## Letter 07

## 빛나는 졸업장

김정중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 25년 서울 방송통신중학교 입학생 중 육칠십대 만학도 입학생이 98명이라고 한다. 2015년 방송통신중학교가 개교한 후 매년 만학도들이 꾸준히 백여 명씩 입학한다고 한다. 그중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입학하는 분들도 상당수라 한다.

어린 시절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세상을 살아오다 노년이 되어서도 배움에 대한 목마름을 잊지 못하고 만학도의 길을 선택한 그들을 보며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던 내 이야기를 풀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베이비붐 세대의 상징으로 통하는 사연 많은 58년 개띠다.

잊을 수 없는 그날 2023년 2월 23일 목요일은 며칠간 기승을 부

리던 꽃샘추위가 누그러든 날이었다. 그날 오후 아내와 함께 달뜬 기분으로 길을 나섰다. 내가 다닌 디지털대학교로부터 <강서 교사에 포토존을 설치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는 문자를 받았기 때문이다. 졸업식이 취소되는 바람에 졸업장을 우편으로 받은 졸업생들의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달래주려는 배려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편치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도 잦아들어 여기저기서 졸업식이 열리고 있는데 유독 우리 학교만 졸업식을 하지 않는다니 학교의 조치에 내 입이 석 자는 나와 있던 터였다.

“당신, 그래도 추억의 사진 한 장은 남겨야 하지 않겠어?”

갈까 말까 망설이던 나는 아내의 지청구에 떠밀려 봄비는 지하철에 몸을 맡겼다.

만학도로 대학에 입학했지만 생업과 공부 두 마리 토끼를 쫓다 보니 생각과 달리 학업에 소홀함이 많아 휴학을 반복하다가 7년 만에야 졸업장을 받았다.

일과 학업을 병행한다는 게 생각처럼 녹록하지 않았다. 교수님들의 주옥같은 강의는 언제나 생업의 굴레에 묻히곤 했다.

아내는 진즉부터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 나에게 무한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었다. 졸업식이 열리면 아들딸 내외까지 모두 불러 축하 자리를 마련하려 했던 아내는 ‘코로나19’라는 의외의 복병이 뜻깊은 졸업식을 삼켜버리자 꽤 서운해했다.

그날 졸업사진을 찍으러 가면서 7년 전에 한 입학식 날을 떠올렸다. 2016년 3월 1일 서울 양재동의 모 호텔 아트홀에서 ‘디지털대학교’ 입학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넓은 객석을 가득 메운 입학생들과 가족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서 나는 이순을 앞둔 나이에 젊은 친구들과 함께 대학 생활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사이버대학이라 해도 설렘은 다르지 않았다.

행사장 입구에는 ‘입학과 함께하는 나만의 꿈을 적어서 남겨주세요!’라는 글귀가 적힌 화이트보드가 세워져 있었다. 나는 어른 키보다도 큰 보드에 하트 모양을 그려 넣고 그 안에 이렇게 썼다.

<이리 가까운 길을 먼 길 돌고 돌아 이제야 섰네. 꿈을 실현하는 그날까지 디지털대학교 파이팅!>

그리고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내 학창 시절은 아쉬움으로 얼룩져 있다. 보릿고개 시절을 온몸으로 겪은 우리 세대가 대개 그렇듯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꽃피워 보고 싶은 꿈도 있었지만 생활은 항상 나의 뒷덜미를 잡았다.

빈농의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나는 가난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은 애초부터 꿈꿀 수 없는 사치였다.

당시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영유아 사망률이 높아 부모님은 위로 다섯 자식을 잃고 늦게나마 다섯 자식을 얻으셨다. 나는 쌍둥이로 태어났고 나보다 세 살 어린 막내도 있다.

세월이 갈수록 부모님은 날로 연로하여지고 가세는 급격하게 기울었다. 변변치 않은 벼농사 소득으로만 살아가는 농촌에서는 한번 빛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면 어지간해서는 빛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기울어가는 난파선의 선장 처지가 된 아버지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고 가족 모두 허리띠를 더욱더 졸라매야 했다.

내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환갑이 넘은 아버지는 나더러 고등

학교에 진학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 것을 다짐받으셨다. 기울어가는 가세를 보며 아버지는 최선의 결정을 하셨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철딱서니 없던 나는 집안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식솔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당신의 깊고도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다.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것을 알면서도 ‘시험에 합격하면 어쩔 수 없이 허락하리라’ 믿고 틈틈이 준비했다.

예비 수험생들의 체력장 시험이 있던 날, 군산상고 교정에서 체력장 시험이 예정되어 있었다. 새벽 5시 군산선 첫차를 타기 위해 일찍부터 내가 부산을 떠는 바람에 김새를 눈치 챈 아버지에게 들통나 버렸다. 그날 나는 아버지의 나무 베개인 퇴침으로 얻어맞고 쓰러지듯 고등학교에 가는 꿈을 접어야 했다.

그때부터 한동안은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돌아보니 기울어가는 가세를 지켜야 했던 가장의 무거운 짐을 이 아들이 헤아려드리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죄스럽다.

밥숟가락 하나 줄이려 어린 나이에 사회에 내던져진 나의 삶은 고단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야간으로 날염 공장 일터에서 버텨야 했고 그만큼 또래들보다 일찍 철이 들었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했다. 덕분에 부지런함과 오투기 같은 생활력이 몸에 배었다.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끼며 살다 보니 물질적 어려움에서는 벗어났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은 ‘학교 갈증’은 두고두고 채워지지 않았다. “인생 뭐 있어? 순리대로 흘러가면 되지!” 하고 외치며 삶에 순응하며 자위할수록 오히려 가슴 밑바닥에서 배움에 대한 갈망은 더 솟구쳤다.

더 늦추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찾아 나선 길은 대입 검정고시로 이어졌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인생의 가을 문턱에서 이 디지털대학교가 내 발길을 잡았다.

그리하여 2023년 그날 나는 7년 만에 졸업사진을 찍기 위해 처음으로 강서 교사를 찾은 것이다. 가양역 7번 출구에서 700여 미터를 걸어가니 10층짜리 쌍둥이 회색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갈 곳은 우측 건물이었다.

디지털대학 교사는 넓은 교정에 많은 건물이 있는 익히 보아온 다른 대학 캠퍼스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 소박한 건물이야말로 나의 꿈을 7년간 품어준 모교다. 그동안 영상으로만 보아온 교수님들의 강의가 이 건물에 있는 강의실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이제는 헤어져야 할 정겨운 교수님들 얼굴이 하나둘 아쉬움 속에 스쳐 지나갔다.

1층 로비에 앙증맞게 마련된 포토 존에서 나는 아내의 머리 위에 학사모를 씌워주었다. 아내는 환하게 웃고 나도 따라 웃었다. 순간 학사모는 단순한 모자가 아니었다. 지난 세월의 아픔과 설움 그리고 뒤늦게 피워낸 꿈의 상징이었다. 그날 나는 아내의 웃음 속에서 비로소 나 자신에게도 졸업장을 건네줄 수 있었다.

## Letter 08

## 산호 반지 진주 반지

김윤숙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나는 산호 반지와 진주 반지를 좋아한다. 그것들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마음의 빗갈을 닦았다.

산호 반지는 붉다. 그 붉음은 뜨겁지 않고 은은한 생기를 품고 있다. 약지에 산호 반지를 낄 때면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피어난다. 그 불꽃은 조용히 타오르며 나를 조금 더 용기 있게 만든다. 산호는 바다의 깊은 곳에서 자라난다. 수많은 시간과 물결을 견디며 붉은빛을 품는다. 그래서일까, 산호 반지를 낀 손끝에서 오래된 인내와 생명의 기운이 느껴진다.

그 산호 반지는 할머니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대대로 내려오던 반지. 산호는 예전 어머님들에게 ‘남편을 잘 내조하고 가정을 잘 가꾼다’는 의미의 애장품이었다. 빗갈이 곱고 단아해서 코르사주나 목걸이로도 많이 소장했지만 반지는 늘 손끝에서 느끼고 바라

보며 살아온 삶의 부적처럼 여겼을 것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달픈 삶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는 작은 힘이었으리라. 할머니는 반지를 내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우리 손녀 윤아야, 이 빨간 반지가 언제 어디서나 힘들 때마다 이 할매가 지켜줄 거그만. 잘 간직해라. 한 번씩 손에 끼 보고.”

지금 나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그 반지는 구식 모델이지만 여전히 내 손에 끼워본다. 불그스레한 빛은 마치 할머니께서 주름진 얼굴로 “오냐, 애썼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린다.

보고 싶다 우리 할매.

진주 반지는 하얗다. 그 하얗은 차갑지 않고 따뜻한 고요를 담고 있다. 진주 반지를 낄 때면 마음이 정돈된다. 진주는 조개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다. 상처가 진주가 되고 고통이 빛으로 변한다. 그래서 진주를 보면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

결혼 전날, 친정엄마와 나는 함께 목욕탕에 갔다. 얼마 만에 서로의 등을 밀어주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뽕연 탕의 온기는 엄마와 나의 28년 서사를 녹여내는 눈물 같았다. 노래처럼 조용히 울리는 감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밤을 함께 누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행복해라. 잘살아야 된다.”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아끼던 하얀 진주 반지를 내 손에 끼워주셨다.

“엄마가 줄 게 요거밖에 없구나. 진주처럼 예쁘고 고상하게 살아. 빛이 나는 사람으로.”





그날 엄마는 진주의 눈물이었다.

산호 반지는 나를 바깥으로 향하게 하고 진주 반지는 나를 안으로 향하게 한다. 할머니는 나를 외적으로 지켜주셨고 엄마는 나를 내적으로 단단하게 해주셨다. 나는 그 둘을 번갈아 가며 낀다. 어떤 날은 산호가 필요하고 어떤 날은 진주가 필요하다. 산호는 나를 세상과 연결시키고 진주는 나를 나 자신과 연결시킨다. 반지는 작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크다. 살아오는 내내 힘들 때마다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

이제는 나의 예쁜 딸과 며느리에게 구식이라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이 반지를 선물하고 싶다. 그들도 언젠가 이 반지를 끼며 자신을 지켜주는 마음의 빗장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 Letter 09

## 인생 학교 여성시대

최옥분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저는 86세의 할머니입니다. 오늘도 아픈 허리를 유모차에 의지한 채 동네 한 바퀴 산책길에 나섭니다. 하늘은 더할 수 없이 청청하고 바람은 머리카락을 살금살금 건드리는 기분 좋은 날이에요.

낙엽이 구르는 보도 위를 천천히 걷다 보니 문득 그 옛날 2003년 여성시대 주부 나들이에 참여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의도 MBC 앞에 모인 600여 명의 여성시대 가족들은 모두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처럼 환희에 들뜬 표정들이었어요. 20대의 버스가 끝도 안 보이게 한 줄로 나란히 달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지요. 마치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국가대표 선수가 퍼레이드를 하며 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듯 우리는 풍선처럼 똥똥 떠서 강원도 원주로 날아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각자 장기자랑도 하고 노래도 불렀어요. 저는 ‘미워도 한세상’이라는 노래를 개사해 ‘미원도 삼백 원, 미풍도 삼백 원~’ 하며 신명 나게 노래를 불렀고 단박에 ‘미원 언니’라는 별명을 부여받으며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콘도의 방 배정을 통해 만난 룸메이트 또한 모두 처음 만나는 생소한 얼굴들이었지만 여성시대 가족이라는 공통분모로 인해 곧 몇 십년지기처럼 금방 친해졌습니다. 마치 여고 동창회라도 온 것 같은 기분이었으니까요.

공개방송, 장기자랑 등 여러 가지 행사 중 지금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촛불 행사와 캠프파이어였습니다. 강원도 산골 깊은 곳, 주변이 모두 캄캄한 밤에 각자 하나씩 촛불을 밝혀 들었지요. 저도 경건한 마음으로 내 가족과 내 나라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며 이날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렸습니다. 아울러 여성시대 프로그램의 무병장수도 진심으로 빌었어요. 이어 밤하늘을 활활 타오르는 캠프파이어는 하늘의 별처럼 꿈 많던 열여덟 살 가슴처럼 참으로 황홀하고도 찬란했지요. 그날의 불길은 오래도록 제 가슴속에서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콘도 주변 산책로를 따라 강원도의 맑은 공기를 원 없이 들이마시며 각종 조형물을 감상하면서 상쾌한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못 누리는 큰 호사였어요.

1박2일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시간, 버스가 여의도에 도착할 때까지도 아쉬움에 가득 찬 사람들은 쉬이 헤어지지 못하고 각자 연락처를 교환하며 동창회처럼 다시 만나자고 약속도 했지요.

가을 나들이에 버금가는 기억으로는 2000년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날, 용인 자연농원에서 열린 여성시대 공개방송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농원에는 튜립이 한창이었고, 신춘편지쇼에서 수상한 분들의 작품이 낭독될 때는 그 처절함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으며 감동적인 작품에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봄나들이, 가을 나들이 모두 잊을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의 활화산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 상자에 넣어두고 허할 때 가끔 꺼내보곤 하는 귀중한 재산이지요.

제가 여성시대를 처음 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 그

때는 손숙 님이 진행하실 때였는데 처음 방송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소박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절절하게 가슴을 파고드는데 ‘내가 모르는 이런 세상이 다 있었구나!’ 하면서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연에 녹아든 삶에 대한 경이와 찬탄이 머리를 강타했지요.

그때부터 저는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애지중지 라디오를 끼고 살았고 여성시대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올라오는 모든 사연이 감동적이었고 제가 따라 해 보고 싶은 일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중 성실과 봉사로 남을 위해 사시는 분들의 사연을 듣고 저도 봉사하는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회사 퇴직 후 정말 복지관의 한글학당 자원교사에 지원해 십수 년을 일했지요. 그 밖에도 KTX 안내 봉사, 초등학교 지킴이, 중고생들과의 환경 정화 사업,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참여 등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지내온 날들을 하나둘 적어서 사연을 보내기 시작했고 사연이 소개될 때마다 짜릿한 기쁨도 함께 맛보았어요. 어느 날 아침, 시내로 나가는 버스의 스피커를 통해 제 사연을 읽어주시는 양희은 님의 낭랑한 음성을 듣는 순간 너무 감격해 주책없이 울 뻔한 적도 있습니다.

여성시대와 함께한 30년. 만일 모르고 살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여성시대는 인생의 학교입니다. 나이 구십을 바라보는 저는 파파노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여성시대 재학생입니다. 여성시대에는 졸업식이란 게 없으니까요.



## Letter 10

## 모두 잘 되었으면

애청자



**칼** 바람이 불고 있다. 이른 새벽 집을 나서는데 추위도 너무 추운 것이다. 옷깃을 여미고 점퍼의 모자를 뒤집어써도 소용없고 눈 속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눈물까지 났다. 회사에 들어서니 다들 룡패딩에 목도리, 모자까지 쓰고 출근했다.

“어머, 웬일이니. 갑자기 추워져도 너무 추워진 거 아니야? 바람이 예사롭지 않더라고.”

“날도 춥고 경기도 안 좋고. 김장하려고 배추 사러 갔다가 엄청 놀랐잖아. 아니, 물가가 왜 이리 오른 거야?”

“우리 남편은 차에 기름 넣으러 갔다가 오른 기름값에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

모여서 한바탕 탄식하고는 조퇴 시간이 되었다. 상사가 말했다.

“모두 몸 사리십시오. 이번 달에는 칼바람이 불 겁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제일 먼저 임금부터 줄이는 법!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청소하는 사무실도 층마다 갈수록 인원수가 적어지고 아예 비어 있는 공실도 생겼고 다들 신경이 예민해 있으니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1년에 한 번씩 하는 재계약. 직장 상사는 이번 같은 칼바람은 처음이라고 했다. 살아남느냐, 나가야 하느냐가 결정되는 시기. 우리 회사와 계약한 최고의 갑인 대기업에서 우리 쪽 높은 분들을 모두 교체했다는 안 좋은 소식도 있다.

카드를 끌고 내가 맡고 있는 층의 사무실에 올라가 청소를 시작했다. 웬하니 비어 있는 책상들을 하나둘 닦아나가는데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먹먹해져 왔다. 책상마다 노트북에, 개인물품에 일과 관련된 책들이 있었고 사무실은 북적북적 직원들로 가득 찼었는데 이제는 너무도 깔끔하게 정리되고 비워진 사무실이 마치 거리의 헐벗은 겨울나무 같다.

빠리릭~ 사무실 도어락 열리는 소리. 사무실 선생님이다.

“안녕하세요, 여사님! 지난번에 주신 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별것도 아닌걸요. 다음에도 생기면 가져다드릴게요.”

“하~ 그런데 그때까지 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2주간 쉬었다가 결과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에구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일이 없는 날에는 멀리 다른 지역까지 나가서 일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조건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쓰이네요. 기도할게요. 잘될 거예요.”

“감사해요~ 여사님!”

하마터면 눈물이 날 뻔했다. 그 큰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는 그

녀. 가득 찼던 강의실이 점점 인원수가 줄어들고 폐강도 많아졌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일하는 내내 우울하고 안쓰럽고 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으니 마음으로 잘 되기를 빌어주는 수밖에 없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너무 추워서 도시락을 싸 오지 않은 나는 다른 직원 언니들과 근처 한식 뷔페를 찾았다. 음식이 맛있기로 유명한 그 뷔페에서 식판 가득 음식을 가져다 먹는데 웬일인지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다.

“있잖아. 이걸 자기들만 알고 있어. 비밀리에 나에게만 얘기해 준 건데 과장님이 복도에서 나를 살짝 부르더라고. 그래서 가 보니까 다음 달부터는 나만 쓰기로 했다는 거야.”

“헉! 그게 무슨 소리야? 4개 층을 원래 두 사람이 관리하는 거잖아. 그럼 다른 한 사람은?”

“잘린 거야. 위에 본사에서 연락이 왔대. 그러면서 잘 부탁한다고 그러더라. 나하고 원수처럼 지내긴 했는데 그 친구가 막상 나간다고 생각하니 안 됐더라고.”

“세상에나~ 그 직원은 이제 어떻게 해요? 하긴 청소하는 미화원까지 줄이고 있어요. 우리도 스케줄 조정이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정녕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음식을 먹는데 마치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다. 식당을 나오니 휘이이이잉~ 휘이이이잉~ 바람은 더 세게 불고 있었다. 칼바람! 살을 에는 칼바람이 불고 있었다. 마음에까지 파고드는 칼바람!

사무실에 혼자 남겨진 그녀를 생각하다가 문득 딸아이가 떠올랐다. 딸아이라도 그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1년마다 재계약해

야 하는 일. 차가운 거리의 모퉁이에 서서 딸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다.

“예쁜 딸~ 점심은 먹었어?”

“결혼식이 내년인데 저는 다이어트 해야 하잖아요. 닭가슴살하고 두유 가져왔어요.”

“그래도 따뜻하게 맛있는 밥 먹어. 오늘 엄청 추운디.”

“엄마는요? 엄마가 걱정이죠. 차가운 도시락 드시지 말고요.”

“걱정하지 마. 밖에서 밥 먹고 딸 생각나서 전화한 거야. 근데 딸~ 너희 회사는 괜찮은 거야?”

나는 아침에 있었던 일을 모두 들려주었다. 이제 막 자리 잡고 일을 시작한 딸이기에 걱정되어서다.

“엄마, 엄마가 말한 그 사무실과 우리 회사는 경쟁업체예요. 그래서 서로 입찰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요. 그러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해요.”

애써 웃어주던 딸아이. 아뿔싸! 혼자 남은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기로 했는데 내 딸이 더 걱정이다.

“아아~ 제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로 가게 해주실 순 없나요?”

하늘을 향한 기도가 한 가지 더 늘게 되었다. 나도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 딸과 내 딸 같은 그녀가 걱정된다. 활기차던 공간이 마치 유령 건물처럼 변해가는 현실. 그 빈 공간에 우리가 매일 들어가서 청소한다. 예전에 들던 그 뜨겁게 타오르던 젊은이들의 심장박동 소리가 빈 공간에서 울려오는 것만 같아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

찬란했던 초록의 여름날이 가고 흑독하리만큼 시리고 아픈 거



울 찬 칼바람이 불고 있다. 그 칼바람은 언젠가 나를 향해 다가올 지도 모른다.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하루살이 목숨처럼 하루하루 견디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언젠가 읽었던 웃픈 글이 생각난다.

‘힘내자는 말! 파이팅이라는 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봉투에 무심히 넣어준 두둑한 현금이 힘이 됩니다.’

휘이잉~ 휘이잉~ 겨울 칼바람은 퇴근 시간까지도 불고 있었다. 집 앞 포장마차에서 따끈한 봉어빵 하나 사서 물고 가야겠다. 그러면 달달하게 살맛나는 세상을 다시금 꿈꾸어 볼 수 있겠지.

## Letter 11

48년 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정훈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휴 대폰 벨이 울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그럼요 잘 지내죠. 사모님은 별로 없으신가요?”

“잘 지내요. 근데 올해는 언제 감 따러 와요? 감 딸 때 됐어요.”

“조만간 들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대덕구 장동이라는 곳에서 30대 후반까지 살다가 자녀들 교육 문제로 대전 시내로 이사해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어요. 그곳의 집은 임대했는데 해마다 10월 초순쯤에는 세입자와 같이 감을 따는 연례행사를 치른답니다. 가을비가 유난히 많이 내려서 예년에 비해 10여 일 늦게 감을 따기 시작했답니다.



감을 따다 보면 동네 분들에게 인사 겸 홍시를 드리기도 하고 인근 계곡산에 산행을 오는 분들이 신기한 듯 바라보면서 지나 칠라치면 선뜻 불러서 홍시를 드리는 데 드시는 분마다 “맛있다~ 달다~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말을 하시면 그저 뿌듯합니다.

작년 10월 23일에도 변함없이 감 따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족인 듯 일행이 천천히 제 곁을 지나갑니다.

“홍시 좀 드세요.”

그러자 그 일행은 잠시 멈춰서 저를 바라보는데 웬지 내국인이 아닌 듯했어요.

“혹시 외국인이세요?”

반응이 없었어요.

“웨어 두유 컴 프럼?”

그러자 ‘아메리카’라고 대답합니다. 묘한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손짓발짓 서툰 영어 단어를 구사하자 그중에 남자 한 분이 “저는 김충열입니다” 뜻밖의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김충열? 김충열은 내 초등학교 동창 이름인데?’

감 따던 장대를 살머시 내려놓고 외국인 남자에게 바짝 다가갑니다.

“유 김충열?”

“예스 김충열!”

“익스큐즈 미 아 유 장동?”

그러자 장황하게 영어로 대답하는데 자꾸 말하면 할수록 초등학교 시절 동창이라는 확신이 강해졌어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제가 살던 이곳은 동네에 미군 부대가 있었고 우리 반에는 다른 친구들과는 구별되는 김충열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오뚝한 콧날에 부리부리한 눈매를 가졌어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의식이 많이 개방화됐고 다문화 가족이라는 순화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단어조차 없었거든요. 단지 모친은 한국 분인데 부친은 미국 군인이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1학년 말 무렵부터 친구 김충열은 보이지 않았고 몇몇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미국으로 입양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약 48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고 흘러 친구 김충열이라는 이름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김충열이라는 친구가 바로 제 앞에 서 있었어요. 맥박이 빨라지고 목소리 데시벨이 높아지면서 전율이 느껴집니다.

“충열아, 나 몰라? 초등학교 친구 나 이정훈.”

하지만 안타깝게도 친구는 나를 몰라보더군요. 한참을 손짓발짓 설명을 하자 그제야 확신이 드는지 친구 김충열은 영문도 모른 채 바라보던 가족들에게 설명을 시작했고 비로소 그 가족들도 눈이 커지면서 탄성을 쏟아냅니다.

친구 김충열은 48년 전의 기억을 더듬으며 어설픈 한국말로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릅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휴대폰을 열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당시 우리 반 초등학교 졸업사진이 있었어요. 빛바랜 흑백사진 속에는 친구들이 모두 있었어요.

‘그랬구나! 친구 김충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리웠고 어린 시절 친구들을 잊지 않으려고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전율을 느꼈어요.

저는 친구와 가족의 사진을 찍어서 초등학교 친구들이 모인 단톡방에 사진과 글을 올렸어요. <긴급 속보 장동에서 우리 친구 김충열과 가족을 만나다>라고요.

그러자 단톡방은 친구들의 문자가 쇄도하기 시작하고 연신 전화가 걸려 옵니다. 어떤 친구는 골프의 홀인원보다 더 희박한 확률이라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감 따러 갔던 날짜가 그랬고, 김충열과 가족이 내 옆을 지나갔고, 제가 친구에게 말을 걸었고, 친구가 “저는 김충열입니다”라는 한국말을 했다는 점에서 어느 한 가지 조건이라도 맞지 않았다면 48년 만에 대한민국을 가족과 함께 찾아온 친구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감 따기 작업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통통하고 불그레한 얼굴을 푸른 잎사귀에 살포시 가리고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감들의 따가운 시선이 제 뒤통수에 꽂힙니다.

친구 김충열과 가족이 동네를 둘러보는 사이에 저는 서둘러 감 따기 작업을 마무리하고 가족을 제 차에 태웁니다. 2000cc급 SUV 차량이 좁게 느껴졌어요. 저는 “sorry, my car small sorry!”를 연발합니다.

대전 둔산에 있는 호텔에 숙소를 예약했다는군요. 30여 분 차 안에서 이야기를 건넨 때마다 친구 김충열은 열심히 휴대폰 버튼을 눌렀고 번역된 한국말을 읽으면서 대화했어요. 숙소 입구에 도착하여 “see you later”를 수도 없이 연발하며 한 사람씩 일일이 포옹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국적의 언어 때문에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되지는 못했지만 살을 맞대는 순간에는 서로에게 반가움과 고마움을 진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홀로 귀가하는 차 안에서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우리 나  
이 열네 살 어린 시절 친구 김충열은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하나에  
서 열까지 낮설고 물선 이국땅 아메리카에 도착했고 양부모 밑에  
입양되어 그곳에서 시작하는 삶이 왜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생활했기에 육십을 넘긴 나이  
에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본인이 태어났던 대한민국을 방  
문하게 되었지요.

친구 김충열의 얼굴은 항상 미소가 일상화됐는지 볼과 광대뼈  
부근의 근육이 많이 발달해 있더군요. 참으로 행복해 보였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따라 존경하는 아버지를 따라온 그의 가족들  
이 대한민국에 와서 예정에도 없던 친구를 만났다는 현실에 보람  
을 느끼게 해준 저 자신에게도 감사함을 느껴요.

가족들의 일정은 부산을 거쳐 제주도로 가서 10월 31일 제주에  
서 인천공항으로 가서 출국한답니다. 국내 여행 중에도 수시로 문  
자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다음 기회에는 친구들을 만나러 오겠노  
라고 약속했어요.

사랑하는 친구 김충열! 비록 이국만리 머나먼 곳에서 살고 있지  
만 친구들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하기를  
바란다. We love you too.

## Letter 12

## 저는 김충열입니다

김충열(John Hurd) | 미국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11월 5일 여성시대에서 소개된 친구 이정훈이 보낸 사연을 듣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제 본명은 존이지만 한국 장동에서 자라면서 김충열로 알려졌습니다. 12살 때 미국인 허드 가족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60세이고 제 아이들은 모두 다 자랐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에게 제가 자란 곳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항상 가족들에게 그곳이 얼마나 평화로운 곳인지 이야기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고향에 가고 싶다는 그리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 앤과 두 어린 자녀인 해나와 션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처음 방문하는 가족과 최고의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도 제가 어린 시절 장동에서 자란 곳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큰아이 둘 에릭과 폴은 아쉽게도 이번에는 여행을 함께 못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시간을 보낸 후 대전행 기차를 탔습니다. 대전역에 도착해서 하루 반나절 동안 운전할 차를 렌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차역 안내데스크에서 외국인이라 차를 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가서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다음 날 딸아이가 택시 앱에 문제가 있어서 호텔 프런트데스크에 택시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직원분께서 정말 친절하셨고 영어도 유창하셨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장동으로 가서 내가 살았던 곳들을 가리키며 그곳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숨바꼭질, 캔 차기, 딱지, 오징어, 구슬치기 같은 게임을 했던 평범한 장소였습니다. 장동에서 자라면서 보낸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게임을 하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잊고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마지막 경고라도 하듯 할머니는 온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나에게 저녁을 먹으러 집에 오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저 계속 놀고 싶었을 뿐입니다.

새로운 발전 속에서도 최대한 옛 고향을 기억하려고 애쓰며 아이들에게 마을을 안내하는 동안 하루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긴 하루를 보낸 후, 우리는 마을 북쪽에 있는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전에 뛰어놀던 초등학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딸아이가 택시 앱에 여전히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보고 돌아오면 택시를 불러줄 수 있는지 사장님께 여쭙봤습니다. 사장님은 택시를 불러주겠다고 했지만 오후 5시에 문을 닫는다고 하셨습니다. 학교를 보고 커피숍으로 돌아왔지만 카페는 이미 문을 닫았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로 걸어가 다른 커

피습에서 택시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데 우리 가족은 몇 걸음 앞서 있었고 고향에서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나는 뒤처져 있었기에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흡수하며 천천히 길을 건너며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한국어로 감을 원하느냐고 묻는 것을 들었고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만큼 한국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특히 좁이 많은 익은 감을 좋아해서 “네”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트럭 짐칸에서 감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캘리포니아에서 왔다고 말했고 어렸을 때 여기에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나는 “충열이요”라고 말했습니다. “충열?” 당황하며 “충열이야?” 그러더니 그는 눈물을 흘리며 트럭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누군가가 내 한국 이름을 불러준 지 오래되어서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마치 ‘애니메이션 라따뚜이’에서 미식가가 라따뚜이를 한입 베어 물었을 때 엄마와 그의 어린 시절이 떠오른 것처럼 나도 내 한국 이름을 듣는 순간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마치 그리움에 젖은 가슴을 털어내듯 내 가슴을 톡톡 치며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나 이정훈이야. 나 기억나?” 나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가 진짜 누구인지 옛 기억 속을 되짚어 보았고 옛 사진을 공유할수록 점점 더 친숙해졌고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옛 사진 속 아이, 나는 그의 얼굴에서 젊음의 본질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포옹했어요. 우리는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교환했고 나는 휴가 중이며 호텔로 돌아갈 택시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호텔로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했고 가는 길에 나는 통역기 앱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좋았던 옛날처럼 느껴졌고 잠시 동안 나는 마치 내가 고향을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일 년에 몇 번씩 초등학교 동창회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꼭 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호텔까지 가는 길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어요.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며 계속 연락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오랜 친구와 제가 만났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차를 빌리는 데 문제가 있었고, 택시 앱과 또 커피숍이 일찍 문을 닫는 데도 문제가 있었고, 우연히 감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어떤 남자를 지나가며 만나고 과일을 주겠다고 할 때 “네”라고 말했는데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초등학교 친구를 만난 날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장동에서 자라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정말 즐거웠고 고향을 다시 방문하여 가장 오랜 친구 중 한 명을 우연히 만난 것은 정말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사촌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름은 노경련이고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건 1988년에 처음 만났을 때였습니다. 부산에 살았는데 얼굴 생김새가 독특합니다. 그녀를 찾는 데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Letter 13

## 나이 들수록 품위 있게

애청자



아 들 가게 일로 배달을 가는 데 연로해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버스를 기다리셨다. 점잖아 보이기도 하고 품위 있어 보여 한마디 말을 건넸다.

“날이 갑자기 추워졌죠~”

“예 그러네요~”

“영하로 떨어졌어요. 따뜻하게 잘 입으셨네요.”

“예~ 내의 입었어요.”

“저도요. 아래위 다 입었어요.”

“발목까지 내려오는 걸 입어야 하는데 반만 내려오는 걸 입었더니 천지 차이네요.”

“그럼요. 근데 스타일이 너무 좋으세요.”

“감사해요.”

“나이 들수록 품위 있어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려니까 힘들어요.”

“힘드세요?”

“예~ 나이 드니까 뻔뻔해져요.”

“저도 그래요. 수줍음도 없어지고. 젊을 땐 내성적이라 말도 못 붙였는데.”

더 긴 대화가 이어지려고 할 즈음에 버스가 왔고 그분은 인사를 하고 가셨다.

배달 일을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봤다. 나도 남편도 나이 들수록 참 뻔뻔해졌다는 걸 알게 됐다. 우리 4인 가족이고 18평 빌라에 사는데 짐은 또 억수로 많다보니 방마다 짐들로 가득하다. 특히 안방은 고속도로 위 갓길처럼 맨바닥을 짚을 수 있는 곳은 얼마 안 된다. 그래서일까?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옷을 거실에서 갈아입는다.

“딸이 방에서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방에서 갈아입어요.”

남편은 들은 척도 않는다. 끝까지 거실에서 옷을 다 갈아입는다. 특히 겨울엔 내복 차림으로 집안에서 다니는데 애들 보기 내가 민망하다.

“만약에 우리 딸이 내복 입고 다니면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잖아요. 내복은 속옷이지 겉옷이 아니에요.”

남편은 들은 척도 않는다. 내복이 편안하다며 집안에서 계속 입고 돌아다닌다.

하나 더! 남편은 화장실에서 문을 끝까지 닫지 않고 불일을 본다. 소변 보는 소리도 크고 시간도 길고, 화장실 바로 앞엔 주방 식탁이 있는데 밥 먹다보면 그 소리가 들린다.

“문 좀 닫아요.”

그때서야 남편은 뒤늦게 문을 닫지만 매번 습관적으로 문을 조금 열어 놓고 볼일을 본다. 딸아이가 말한다.

“큰 집으로 이사 가야 하는 이유 하나가 밥 먹다가 저 소리 안 듣고 싶어서야.”

또 하나 더, 남편은 샤워하러 가면서 속옷을 안 가지고 들어간다. 서랍장이 화장실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런다. 샤워 후 맨몸으로 나와 서랍장에서 속옷을 꺼내 입는다.

“딸이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속옷을 달라고 하든지 샤워하러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요.”

화내는 나와는 달리 아무 말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태연하게 남편은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는다. 이쯤 되면 뻔뻔하다 못해 가족 간에 너무나 예의가 없는 거 아닌가?

남편만 뻔뻔한 건 아니다. 나도 뻔뻔하다. 특히 지하철 탈 때 오래된 관절염과 허리 통증, 고관절 통증으로 좌석을 부지런히 찾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임신부 빈 좌석을 발견하게 되고 조심스레 천천히 앉는다. ‘혹시 임신부 오면 어찌지? 얼른 자리 내줘야지’하는 마음으로 줄다가도 억지로 눈을 뜨고 확인하며 앉아서 목적지까지 간다. 앉아 있는 내내 맘이 아주 불편한 상태로. 하지만 임신부 좌석 아니면 출퇴근 시간은 빈 좌석을 찾기가 힘든데 어찌겠는가? 왕복 2시간을 계속 서서 오가고 나면 발목과 무릎이 너무 아파 찢찢매기 때문에 뻔뻔하게 앉는 쪽을 선택한다.

이제 내 나이 육십.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나부터라도 나이 들수록 품위 있게 고상하게 후덕하게 살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한다.

## 비스문전의 아침표

김기환 | 서울 노원구 수락산로

저는 몇일후면 31년 동안해온 비스문전의 아침표를 찍을게요 여성시대에 보고합니다. 회문누님 처음진행 할때부터 두문사랑이지요. 비스문전을 몇번서하러 왔는데 70살이 되어서 그만두라구 하네요. 저님 비스문 우리 서민들의 밥이요... 눈이요... 제라구 생각합니다 처음 문전을 할때는 오뚜기가 서둘러 싹두가 알았지요. 배라간격은 못맞추고 밥도못먹고 화장실을 제때 못가니 스트레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조주만 써두어도 짜증이났고 나이프싹이 빨리올라오지 않으면 또 짜증이 났습니다.

그렇게 애꿎애꿎 우짖에 쫓기듯 읽는하루 저에게 어느 신배 관공이 "너 그렇게 일하면 안된다 형나.. 이 비스

문전쪽 알아 집에서 나왔을때 간이근 쫓겨간 사빠빠들  
 나와야 하겠거야 그러고 간식들 가지고 다니다 밤때쯤  
 놓치면 그때 어떡거야,, 그 산배닝의 조연은 제 버스  
 인생에 주도권이 되었습니다. 이젠 제가 조배들한테  
 그얘기쯤 해주지요. 저의 오랜시간 버스운전을 하면서  
 많은일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두가지 이야기쯤  
 오늘 해보려 합니다. 첫번째 이야기의 조연은 이쁜만큼  
 잔뜩까한 귀여운 5살 여자 아이 이야기 입니다. 종착지인  
 석계역에 손님들을 내려 드리고 차근차근 가느중 이었습니다  
 다 커브를 도는데 종승리가나서 횡단리드를 보니 조그만  
 여자아이가 차하얏고로 뛰어질겁니다

기적 한번 됐지요. 근데 그아이의 움직임을 봤을 절이었는데  
 "엄마 어디갔어..." 하느 겁니다 "오야 아저씨가 물어왔을  
 양이거들. 너 엄마 어디갔어 니 누구야,, 하니 "나 조연쎄,,  
 어떻게하지 신근해야 하나.. 아냐 찾으면 으겠지..  
 생각한 저의 손뼉이름 데리고 차근차근 제란에  
 앉을 비벼주니 은뼉이름 아쪽 맞나게 잠이들었습니다.  
 잠시후 차근차근 택시칸새가 들어왔고 은뼉이 엄마

인듯한 젊은 여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은병이 혼  
분과 왓작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병아 이만래  
엄마가 이만래 어떻게 너를 두곤 내리니... 사연들  
들어보니 친정 아버지 수초문제로 언니와 동화 하나  
옆에서 잤든 은병이 혼 놀고내린 거지요.

그후 은병이 혼 지후 버스 아리씨라 우르며 귀머  
듣곤 엄마와 석계역으로 자주 나왔었지요.

두번째 이야기요 어노 할머니 이야기 입니다. 그날도  
석계역으로 들어서도네 여학생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리씨 여기 할머니 오중싸요." 학생들 소리에 돌아보니  
버스바닥이 수변으로 종긴했습니다. 할머니도 아무  
이동없이 칼썩한 바라보곤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아리씨 이거 편지깁니다요. 해서보니 찢은한 가방위에  
비죽나온것은 편지 엮은 돈이 3만원 들어 있었습니다.  
죄송 합니다 차이에 갓리심문이니 파출소에 데려다  
주시오. 하느 내용 이었습니다..

아침 교대시간이라 교대후 하근 택시기사님께 사정 삼영문  
하근 뽕스름 깎아 할머니 혼 양케하곤 파출소로 갔습니다.



편지를 읽어보고 가방안에서 두제 보닛 경첩판에게 호환자한테  
찾았을수 있나 물어보자 경첩판은 고개를 절레 절레 ...  
신분증도 없고 할머니가 기억을 못하느라 찾았을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어쩔라냐고 다시문자, 시집로 보낸다는  
겁니다 ...

이런 일은 가끔 있는 일이고 뉴스거리도 아닐텐데  
겁니다 ... 저도 돌아오는 히스안에서 초전 없는  
눈으로 한쪽만 바라본단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중해 절송니다 자기한테 자식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식을 자기한테 버렸지만  
그자식이 사친까봐 입을 앙사놓고 있었선게  
아닙니다...

이수연이 방송에 나온사면 저도 퇴직을 할수 겠지요.  
제나이 기쁘 리는 또다름 인생을 살겠지만 상흔같은  
아무생각없이 폭치면서 아내와 그동안 못다한  
여행을 계획가 합니다 ...



## 여성시대 사진방



[7344] 오늘은 불우이웃돕기 고추장을 담가 100분께 나눠드리기 위해 작업 중입니다.



[6385] 어제 서점에 들렀다가 필사집을 만났어요. 필사 코너 한가운데, 여성시대 필사집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표지도 너무 예쁘고 반가운 마음에 얼른 담아왔어요.



[1623] 바닷가에서 비가 오는 날 외에는 휴일도 없이 흙을 나르는 일을 쳇바퀴 돌듯이 덤프 30대가 일하고 있어요.



[1803] 사과 농장입니다. 날씨가 아주 추워요.



[2089] 공장 난로에 고구마 굽고 주전자에 보리차 끓이고 있습니다.



[7079] 서점 가서 여성시대 필사책 사 왔어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두 권의 책으로 부자가 되었네요.

## 오늘의 추억

글/그림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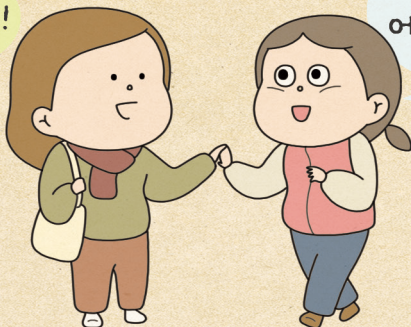
인천 서구 영곡로 의

여성시대 가족 양서운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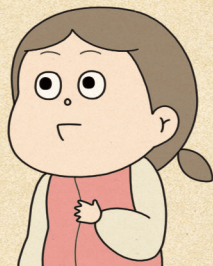


어머 언니!

어머! 세상에  
어떻게 여기서 만나~

얼마 전 시장에 갔다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친했던 언니를 우연히 마주했습니다.

어우 근데 너는 어쩔  
그때나 지금이나 얼굴이 영 밝지가 않아  
안되겠다. 나랑 같이 댄스학원  
안 다닐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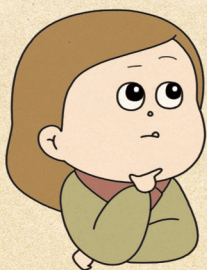




언니~ 나  
몸치인 거 알잖아.  
그리고 이 나이에  
무슨 춤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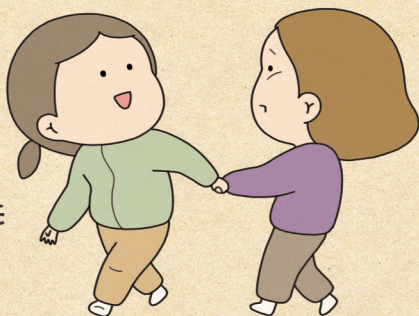


어머 그게 어때서?  
여 나는 허리 디스크 수술도 했는데도  
너무 재밌어서 그만 둘 수가 없어.  
꼭 같이 다니자.



댄스학원...?  
트롯 댄스...?

언니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 수업을 신청한 저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뻣뻣한 비둘기 같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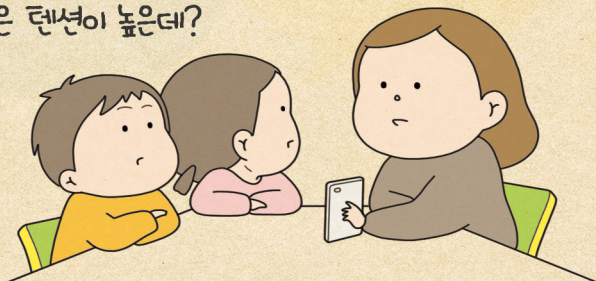


3개월이 지난 지금  
나름대로 자신감도 많이 붙었습니다.

한 번은 일하고 있는 돌봄교실 아이들에게  
저의 춤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왜 이렇게 댄션이 낮아요?  
다른 분들은 댄션이 높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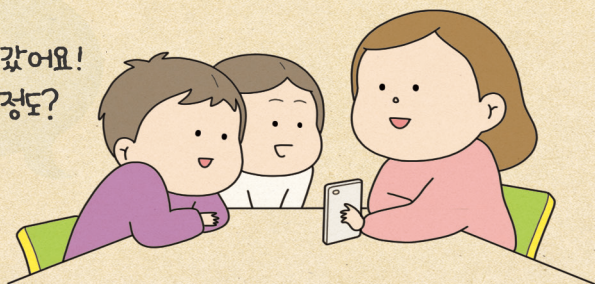
그리고 왜  
옷을 검은색만 입어요?  
예쁜 옷 좀 입고하세요~



아이들의 의견에 힘입어 저는  
댄션도 올리고, 화사한 옷도 입어보았어요.



드디어  
텐션이 올라갔어요!  
한 50% 정도?



아이들의 좋은 반응에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그동안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재미없는 선생님이로  
느꼈을까 싶어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올해 초 쓸개에 담석이 생겨  
수술을 받은 이후로 우울하고 기운이 없던 저는  
트롯 댄스 덕분에 활력이 생겨 정말 기쁩니다.

늘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로 아이들에게 배우는 것도 참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꿈 사랑반 아이들아!  
선생님 텐션 100%까지 힘내볼게.  
너무 고맙고 사랑해~





## 국내 베이커리 업계의 선구자



IBK기업은행 구월동지점 거래고객  
**철은인터내셔널(주) 이은자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철은인터내셔널(주)의 이은자 대표는 국내 베이커리 분야의 대모다.  
 여성 기업인이 거의 없었던 1985년 창업하여 당당하게 일하는  
 여성이 되고자 했던 철의 여인 이은자 대표.  
 여성 CEO의 따뜻한 리더십과 거침없는 도전으로  
 40여 년의 세월을 넘어 100년 기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철은인터내셔널은 베이글, 쿠키, 마카롱, 페이스트리 및 요리 빵 등을 생산하는 제과제빵 생산 유통 전문 업체다. 당당하게 일하는 여성이 되고 싶었던 이은자 대표는 철의 여인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마가릿 대처 총리를 본받고 싶어 철의 여인의 ‘철’과 이은자의 ‘은’을 따 회사명을 지었다.

창업 당시 베이커리 재료를 수입해 유통을 주로 하던 철은인터내셔널은 시장의 변화에 맞춰 생산까지

사업을 확대했다. 현재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전국에 12개의 유통 지사를 두었고 국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및 카페와 고급 호텔 등에 베이커리를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사 브랜드 ‘쥬네스’를 런칭하여 마카롱과 베이커리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베이커리 업계에서 철은인터내셔널이 40여 년간 꾸준히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안주하지 않고 트렌드를 쫓아 부단히 노력했다. 베이커리 분야에서 앞서가는 일본과 프랑스를 제집 드나들 듯 오가며 시장조사를 하였고, 시장의 흐름을 한발 앞서 파악하고 늘 국내 최초의 기술을 선보였다. 최근에는 시간이 지나도 부풀었던 빵이 주저앉지 않고 항상 갓 구운 빵처럼 모양과 맛이 그대로 유지되는 기술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호평받고 있다.

지금은 철은인터내셔널이 국내 베이커리 업계를 이끌고 있지만 창업 당시만 해도 여성 CEO가 드물어 어려움이 많았다. 이은자 대표는 여라는 이유만으로 시기와 질투, 무시를 겪는 일이 허다했지만 하루 4~5시간씩 자면서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이런 노력 끝에 그녀는 업계의 선구자가 되었고 제과제빵 원료 수입과 유통에 매진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17회 여성경제인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저희 회사는 고급 원료만 고집합



니다. 식품 회사는 가격에 휘둘리지  
않아야 해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  
격이 저렴한 제과제빵 제품이 시장  
에 많이 쏟아져 나와 경쟁이 치열해  
지지만 거기에 휘둘리면 좋은 원료  
를 쓸 수 없어요. 결국 소비자가 그  
차이를 알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자 대표는 ‘유지경성(有志竟  
成)’을 믿는다.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한 길을 꾸  
준히 걸어온 그녀는 이제 국내뿐 아

니라 해외 수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구월동 지점 이호승  
지점장은 “철은인터내셔널은 국내  
베이커리 시장에서 차별화된 유통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개척한 도전  
적인 기업”이라며 “양사는 오랜 신뢰  
를 바탕으로 다양한 동반 성장 프로  
그램을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여성 CEO의 따뜻한 리더십  
을 바탕으로 기업을 성장시킨 이은



자 대표님의 철학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도 펼쳐나가고 있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IBK기업은행은 수출 관련 외환 리스크 관리 및 수출입 결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

고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해외 진출과 온라인 유통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IBK 컨설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IBK기업은행 구월동 지점 이호승 지점장(왼쪽)과 철은인터내셔널(주) 이은자 대표

### ❗ 철은인터내셔널(주) 이은자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기술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라.
2. 트렌드에 따라 변화하고 도전하라.
3. 주변의 시기와 질투에 휘둘리지 말아라.

#### 철은인터내셔널(주)

대 표 이은자

전 화 032-543-3939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소담2로 26

홈페이지 <http://www.chleun.co.kr/>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 우리 일상과 산업의 안전을 지키다



IBK기업은행 대불공단지점 거래고객

**성문(주) 이재홍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성문(주)은 LNG연료공급시스템 분야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여  
선박 연료 공급의 안전과 효율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왔다.  
창의적인 기술력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전 정신,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일상과  
산업의 안전을 지키는 성문의 성장 스토리를 소개한다.

성문은 선박 엔진 및 구성 부품품 제조 전문 기업이다. 성문의 핵심 경쟁력은 친환경 선박의 연료 공급 시스템에 있다. 연료탱크에서 엔진까지 이동하는 경로인 ‘특수 이중배관’을 주력으로 생산하며 특히 LNG, LPG는 물론 메탄올, 에탄, 암모니아 등 차세대 친환경 연료 엔진에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영암 본사와 김해 공장, 그리고 최근에 인수한 진

해 공장을 생산 거점으로 삼아 제조하고 있으며 현재 140여 명의 직원들이 재직 중이다.

성문의 탄생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LNGC(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동력을 터빈에서 엔진으로 발전시킨 핀란드 기업 바르질라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였고 국내 기업 현대와 합작하여 영암에 바르질라현대엔진 공장을 세웠다. 설



립 초기 바르질라현대는 모든 부품을 유럽 이탈리아에서 전량 수입하고 국내에서는 조립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당시 협력 업체에서 일하고 있던 이재홍 대표는 외장품들은 국내에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이듬해 임대 공장을 빌려 4명의 인원으로 성문을 창업했다.

성문은 창업 초기 바르질라현대의 협력사로 외장품들만 만들다가 국내 최초로 엔진 이중배관 R&D에 도전하여 성공했다. 연료를 운반할 때 가스 누출이 있더라도 폭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중배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기술 유출을 우려해 이때 필요한 이중배관을 100% 수입에 의

존했다. 그런데 성문에서 국내 최초로 엔진 이중배관 R&D에 성공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회사의 매출이 급성장하였고 시장 안착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독보적인 기술적 창의성이 성문의 강점입니다. 세계적인 엔진 설계사들이 새로운 개념의 이중배관을 개발할 때 제작 가능 여부를 가장 먼저 성문에 의뢰합니다. 그 정도로 기술적 신뢰도가 높아요. 단순 주문 제작을 넘어 설계 단계에서부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이 타사와는 구별되는 성문의 차별점입니다.”

성문은 지난해 약 5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정도로 조선 기자재 업





계에서 자리 잡았지만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창업 이후 바르질라현대의 협력업체로 일감의 100%를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업의 불황과 선박 추진 시스템의 트렌드 변화로 수주가 급감하면서 성문의 입지도 흔들렸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재홍 대표는 2017년 주변의 극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남 김해에 신규 공장을 설립하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였다. 그 결과 김해 공장을 기반으로 현대중공업,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여

고객사를 다변화하였고 제2의 도약을 이루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회사를 운영할 때는 고객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고의 품질과 경쟁력 있는 가격은 물론 납기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성문은 향후 단순 배관 제작을 넘어 연료 공급 장치인 ‘모듈(Module)’ 제작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아 영역을 확장하고 세계적인 탈탄소



이슈에 발맞춰 친환경 선박의 신조 및 개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대불공단지점 김상희 지점장은 “2009년 기업 초장기에 성문이 가진 기술력을 믿고 금융

지원을 하였고 이를 밑거름으로 성문이 탄탄하게 발전하였다”며 “앞으로도 성장 단계별 맞춤 금융지원 및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성문(주) 이재홍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대불공단지점 김상희 지점장

### ! 성문(주) 이재홍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창의적이고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승부하라.
2. 위기를 기회로 바꿔라.
3.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라.

성문(주)

대 표 이재홍  
고객센터 061-464-9696

주 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등로 105  
홈페이지 <http://www.sungmoon.co.kr/>





## 여자는 모른다

- 81 중소기업 만년 과장
- 86 충성!
- 90 딸 부잣집 막내사위
- 94 가까이 더 가까이
- 100 21세기 강태공

## 사랑 사랑 사랑

- 105 어느 도어맨의 일기



일러스트 | 조신애

여자는 모른다

## 중소기업 만년 과장

애청자

요즘 내가 즐겨보는 드라마 <서울 자카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성과보다 인간관계가 더 피곤하다. 버티는 게 능력이야!”

우리 회사 김 부장님도 저 드라마 속 김 부장처럼 살고 있을까? 여유 있는 미소, 잘 다려진 셔츠, 나보다 두툼할 거 같은 월급. 화면 속 그는 처음엔 모든 걸 다 가진 남자로 보였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 수록 찌질하고 없어 보이는 그의 일상이 꼭 현실 속 나를 보는 것 같아 한숨이 나왔다.

현실 속 나는 중소기업 만년 과장. 서울 변두리 전세 만기 6개월 남은 집. 주변 시세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직각으로 내려앉는 생활이다.

남들이 보기엔 그래도 과장이면 괜찮아 보이겠지만 나는 회사에

서도 집에서도 늘 ‘중간 관리자의 비애’를 달고 산다. 리더십이 있는 듯 없는 듯 늘 여유로운 척하지만 속은 늘 초조하다.

드라마 속 김낙수 부장네 회사는 김 부장이 말을 꺼내는 순간 분위기가 싹 바뀐다.

‘저렇게 말하는 저 사람이 책임지겠지?’

‘아아아~ 나는 안 들린다. 안 보인다. 몰라 몰라~’

모두가 한걸음 뒤로 물러나니 졸지에 김 부장만 일보 전진한 듯 보이는 상황. 현실 속 우리 회사에선 내가 아이디어를 내면 ‘그게 예산이 되나?’ 하는 눈초리가 나를 잡아 가둔다. 현실 속 남자는 ‘예산이 없단다’라고 말하는 게 더 힘들고 창피하다.

며칠 전에 사장님이 갑자기 “이번 달은 팀별로 자율 근속 캠페인을 하지?” 말씀하셨다. 자율 근속. 글자 그대로 풀면 알아서 자율적으로 일하라는 말이지만 실상은 ‘퇴근 후에도 남아서 잔업 좀 해라’라는 말이다. 팀원들은 눈치를 보며 나를 힐끗 쳐다본다. 나는 과장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했다.

“그래 우리 팀이 모범을 보이자.”

그리고 속으로 울부짖었다.

‘아이참~ 오늘 우리 동네 정육점 고기 할인하는 날인데!’

그렇게 ‘자율’ 야근을 하게 된 날, 라면으로 저녁 식사를 때우는 데 신입이 나를 뵈고 보고 있었다.

“왜 안 먹고 그러고 있어?”

“과장님, 라면 드시는 모습이... 아, 아니에요.”

“왜? 말해봐. 무슨 말인데?”

“왜지 짬해요.”

아니라고, 진짜 힘들지 않다고, 괜찮다고 했지만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니 정말 좀 짝해 보였다. 남자의 애환은 주로 그렇게 화장실 유리창이나 자동차 창문에서 발견되곤 한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이번엔 전세 시세의 공포가 기다린다.

“여보, 우리도 언젠간 집 사야지?”

아내가 전세 재계약 견적서를 내밀었다. 현실의 애환은 언제나 예고 없이 들이닥친다.

“뭐야? 갑자기 이렇게나 올린다고? 이걸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 조금 더 멀리 가서 살아볼까?”

남자는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밀려나는 것이 가장 힘들다. 담보대출 금리, 대출 한도, 미래의 불확실성이 머리 위에서 춤을 춘다. 남자는 희망보다 숫자에 먼저 겁을 먹는다. 부동산 앱을 켜다카도 몇 초 만에 끈다.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차마 두려워서.

그렇게 다소 지쳐있던 나에게 선물 같은 순간이 찾아왔다. 회사 창립 기념 어린이 행사 담당자로 내가 지목됐는데 예산은 줄고 준비시간은 촉박했다.

하지만 사장님은 “작년보다 더 감동적으로 섬세하게 해보자! 오 과장, 할 수 있지?” 나는 머리를 잡고 끙끙대며 자료를 뒤졌다. 행사 진행 스크립트, 안전 계획, 아이들 활동 순서까지 체크하며 팀원들과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반복했다.

그리고 내가 낸 아이디어로 아이들 이름이 새겨진 메달을 직접 주문했다. ‘참가상’이지만 모든 아이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새기는 데 몇 백 원밖에 안 드는 방법도 찾아냈다. 아이들은 메달을 받고 눈이 반짝이며 좋아했고 부모들은 감동해 사진을 쏟아냈다. 한 아이는 내게 달려와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과장 아저씨, 내 이름 불러주셔서 고마워요!”

그 짧은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어른들에게는 작은 일이지 만 아이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순간이었다.

행사 끝난 뒤 현실 속 부서장, 우리 회사 김 부장이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오 과장~ 이런 센스가 진짜 능력이에요. 이런 작은 차이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진짜 고생 많았어요.”

그 한마디에 또 마음이 뜨거워졌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였다.

그날 밤 버스에서 바라본 창밖 불빛은 모두 아름다워 보였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 편의점에 들러 캔맥주를 샀다. 할인 코너 3캔 7700원짜리. 찬바람 맞으며 한 캔을 비우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 울고 싶어서가 아니라 버텨온 내가 감격스러웠을까?

다음 날 회사 출근하니 팀원 한 명이 갑작스레 아픈 가족 때문에 조퇴를 해야 했다. 나는 즉시 업무를 재배치하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걱정하지 말라고 마음 편하게 가족을 돌보라고. 작은 인정과 배려가 팀 분위기를 바꾼다는 것을 몸소 느꼈으니까. 나를 움직인 상사들의 인정과 격려를 이번엔 내가 후배에게 돌려줄 때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이 어쩐지 자랑스러웠다.

며칠 뒤 부서 회식이 있었다. 적당히 술을 곁들인 자리에서 후배들은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저는 과장님처럼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긴 힘들 거 같아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신입 때 어땠는지 알아? 자네들보다 훨씬 더 엉망이었어. 욕심내지 마. 조금씩 경험해 봐. 실수해도 괜찮아. 일은 결국 버티면

서 배우는 거니까.”

그 말을 듣는 후배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나의 작은 경험의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걸 새삼 느꼈다. 회식 자리는 늦어졌고 꽤 늦은 시간 귀가했는데 아내가 안 자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 힘들었지?”

“눈이 왜 이렇게 빨개? 집에 무슨 일 있어?”

“그제....”

아내는 나 몰래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대출받았다가 은행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을 받았단다. 순간 화가 났지만 나는 그저 손을 잡고 말했다.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혼자 고민하지 말고.”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남자의 애환은 사실 혼자서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함께 버티며 서로를 지키는 과정임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드라마 속 김 부장은 말한다.

“누가 뭘 해서 돈을 벌었다더라~ 얼마를 벌었다더라~ 그런 말은 듣지 말아야 해. 가벼운 귀는 생각을 흐트리고 판단을 무디게 하며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다.”

나는 여전히 전세 시세에 떨고 회사에서는 만년 과장으로 산다. 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내 방식으로 잘살게 될 거라 믿는다. 근거 없는 낙관이라 해도 철없는 중년의 순진한 희망이라고 해도 상관 없다. 그 믿음 하나로 오늘을 견디며 남자는 울고 웃는다. 그 사이사이에 모든 버팀의 순간들, 그건 여자는 모르는 아녀! 내 여자는 모르게 하고픈 남자들만의 조용하고 묵직한 애환일 것이다.

여자는 모른다

# 충성!

애청자

어린 시절 부모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도 고모부처럼 장교가 되어라.”

“그래~ 고모 얘기 들어보니까 직업군인으로 살면 힘든 점도 많지만 좋은 점이 더 많대.”

고모부는 육군 3사관학교 출신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방 후방 가리지 않고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그때마다 우린 고모부의 관사로 놀러 가곤 했는데 특히 영천에 있는 육군 3사관학교에서 근무하실 땐 사관학교 후보생들이 멋진 제복을 입고 그 넓은 운동장에서 땀 흘리고 훈련받는 모습을 직관할 수 있었습니다. 분열 연습하는 것도 멋있고, 체육관에서 땀 흘리며 운동하는 모습, 경기 중에 거친 몸싸움을 하고 쿨하게 서로 하는 악수도 어린 소년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그래! 나도 빨리 커서 저 형들처럼 군인 장교 되겠어!”

그렇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의 꿈은 장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태권도도 배우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꿈은 변하지 않았더랬죠.

“우리 조카~ 진짜로 고모부처럼 군인 될 거야?”

“네~ 고모부! 저 이번에 육군사관학교도 지원했어요!”

“허허허~ 우리 조카, 이제 내 후배가 되는 건가.”

“네~ 결과 나오면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야심만만 뜨거운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렀지만 결과는 탈락.

“조카, 꼭 육사를 나와야만 군인이 되는 게 아니야. 육사 안 나와도 군 생활 잘만 하면 별도 달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멋진 군인이 될 수 있어.”

“진짜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군인 된다는 사람이 이깟 일로 이렇게 기죽으면 되겠어? 어깨 펴고 군가 일발 장전~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한 곡 뽑습니다~ 기운 냅니다~”

“♫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 멋진 사나이~♫”

“그렇지~ 잘한다~ 핫돌셋넷~”

그렇게 고모부의 격려에 힘입어 저는 일반 대학에 진학했다가 3사관학교로 편입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받고 ‘국군의 날’ 시가행진도 참여하면서 멋진 추억을 남기고 49기로 임관했습니다. 고모부와 고모부의 아들인 사촌 형 그리고 저까지 3사 가족이 되었지요.



연천에 있는 부대에서 소대장 생활을 3년 하고 중위를 달고 결혼하면서는 대구로 발령이 나면서 대위로 진급까지 했답니다.

‘이대로만 쪽 가면 소령으로 예편하신 고모부보다 더 높은 계급으로 예편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정말 희망에 부풀어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구미로 발령이 나서 2년을 더 근무하고 후방근무를 마치자마자 다시 전방으로 가야 하는데 저는 춘천을 희망했지요. 아이들 교육에도 좋을 것 같아서 교육의 도시 춘천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했지만 인생은 역시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진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빨리 군복을 벗고 다른 일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아내가 3개월 공부하더니 덜컥 군무원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당신도 시험 한번 봐봐. 당신 어려서부터 꿈이 군인이었다며. 꼭 높은 계급으로 진급해야만 군인이야? 우리 그냥 군무원 부부로 살면서 알콩달콩 애들 잘 키우고 당신 좋아하는 군대에서 재밌게 살자.”

아내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어려서부터의 나의 꿈. 군대 말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진로. 그래서 다시 영어 공부도 하고 한국사 공부도 하고 자동차 정비, 공학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시험 보고 지금은 7급 군무원으로 아내와 함께 일하고 있어요. 부부 군무원이라 서로 이해해 주는 부분들이 많아서 직업 군인으로 살 때만큼이나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고모부가 소령 계급장을 달고 군복무 중인 사촌형을 매우 자랑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저도 제 아들이나 딸이 아빠의 뒤를 이어서 아빠가 못다 이룬 꿈을 마저 이루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아들, 오늘도 시금치 많이 먹고 아빠처럼 키 183cm 될 때까지 크는 거다. 그리고 아빠처럼 멋진 군인이 되는 거야. 알았지?”

“충! 땡!”

“옳지~ 충성~ 쉬어~”

“하지 마~ 여섯 살 애한테 왜 자꾸 꿈을 강요해?”

“에~ 그러는 당신은 우리 아들 ‘사’자 들어가는 직업했으면 좋겠다며?”

“그거야 우리 애가 워낙 날 닮아서 똑똑하니까.”

“안돼 안돼. 우리 아들은 내 뒤를 이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멋진 군인이 될 거야. 그치 아들?”

“충! 땡! 어린이집 다녀오겠습니다.”

“옳지 옳지~ 충성! 조심히 다녀와 아들~”

오늘도 여섯 살 아들을 강인하게 키우기 위해 태권도 학원도 보내고 키 성장 영양제도 먹였습니다. 나의 주니어 우리 아들딸이 아빠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크면서 꿈이 열두 번도 더 바뀌겠지만 아빠의 욕심은 우리 아이들이 아빠보다 더 높은 계급으로 부대원들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충성! 아빠, 어린이집 다녀왔습니다.”

달려와 품에 안기는 녀석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아직은 다행히 아빠의 바람대로 경례하는 걸 좋아하고 ‘받들어충!’ 자세가 6세 아동 중에 가장 탁월한 내 아들. 아들이 지금 이대로 튼튼하게만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이제 몇 년 안 남았다. 열심히 해서 우리 꼭 꿈을 이루자!

여자는 모른다

## 딸 부잣집 막내사위

애청자

남자들은 처제가 많은 사람을 부러워한다. 대체로 그렇다. 나는 특히 그랬다. 결혼 전 여자를 소개받을 때면 항상 물었다.

“형제가 어떻게 돼?”

그렇게 늘 바라고 원했던 나의 이상형과는 살짝 빗나간 지금의 아내. 아내는 1남 6녀 중 막내다. 그러니까 나에게서는 처제는 없고 처형만 다섯 명이다.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 그리고 부모님 생신이 되면 처가 식구들은 으레 다 모이는데 여기서 막내사위인 나는 당연히 장인 장모님한테는 제일 잘해야 하지만 사실 가장 겁나는 존재는 처형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아내와 사소한 일로 다투었는데 아내가 그 일을 처형들한테 말한 모양이다. 명절 날 큰 처형이 갑자기 허공을 보며 말씀하셨다.

“아니, 남자들은 말이야. 여자들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아내 말을 안 듣고 꼭 이상한 생각들을 한다고.”

처음엔 누구한테 말하시는 건지 감을 못 잡았다. 근데 처형이 내 눈을 지긋이 바라보면서 ‘내 말 못 알아들어?’라는 눈빛을 쏘실 때 느낌이 왔다. ‘나구나!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깨달음을 얻고 어쩔 줄 몰라 굳어 있는 나를 보며 처형은 아무 말 없이 지긋이 웃으셨지만 내 귀에는 푹푹히 들리는 듯했다.

‘애송아, 내 동생 속 썩이지 마라. 지켜보고 있다.’

늘 살갑게 대해주시지만 장모님과 16살 차이밖에 안 나는 큰 처형은 나에게 이모 같은 분이고 그렇게 매서운 눈초리로 바라보실 때면 오금이 저릴 때도 있다. 처형들은 대체로 연세도 많으시고 살아온 인생 노하우에서도 항상 나는 밀리니까 신훈 초 처가에 가면 주눅이 들곤 했다. 게다가 큰 처형은 목소리도 크고 말씀도 직선적이라 한번 찍히면 회복하기 힘들 거 같았다.

“제부~ 너는 진짜 정체가 뭐니? 사회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렇게 직구로 경고를 날리신 적도 많은데 뭣 모르던 시절엔 억울하다고 항변도 하고 해명도 해봤지만 그럴수록 다섯 분의 처형들에게 처단만 당할 뿐 처가에서는 가능한 한 팩트로 싸우기 보다 말을 아끼는 게 신상에 좋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됐다. 더 나아가 나는 처형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대일 필살기 방법까지 완벽히 터득했다.

요리를 좋아하는 큰 처형에게는 이렇게 한다.

“우와! 이거 뭐예요? 진짜 맛있는데요!”

“그래? 그거 우리 맨날 먹던 건데?”

“에? 이걸 맨날 먹었다고요? 아 억울해~ 혜은이랑 일찍 결혼할 걸. 그러면 나도 이 맛있는 거 맨날 먹었을 텐데.”

“그렇게 맛있어~ 앞으로 자주 해줄게. 또 먹고 싶은 건 없어? 굴 전 해줄까? 아니면 육전?”

노래를 잘하는 셋째 처형께는 한 번씩 노래를 불러달라고 청합니다.

“아휴 됐어. 갑자기 무슨 노래야.”

“제가 다 들었어요. 노래 진짜 잘하신다니ですよ. 전국노래자랑 예심 통과자. 아이유를 삼킨 목소리.”

“아휴~ 아니야~ 나 노래 못해. 무대 아니면 에코 없으면 노래 안한다고.”

노래방에 모시고 가면 모두가 “그만~” 할 때까지 자신만의 레퍼토리로 단독 콘서트를 하다가 “우리 제부 때문에 나 목소리 다 쉬겠다. 그래도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말해. 내가 언제든 불러줄게”라고 웃으실 때 나는 확신한다. 셋째 처형도 이제 확실한 내 편!

막내 처형은 사실 짠순이신데 알뜰하다고 장점을 살려드리면 은근히 재테크 정보도 나눠주고 ‘제부가 사람 볼 줄 안다’며 어깨도 두드려 주신다.

근데 여기서 잠깐! 왜 이렇게까지 처형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고? 그건 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전에 회사 일로 잠시 처가 모임에 소홀했다가 ‘지금 일이 중요하냐? 가족이 중요하냐?’ 다섯 명의 처형에게 둘러싸여 짹짹~ 짹짹~ 처형들은 돌아가며 한마디씩만 하셨지만 나는 골이 땡땡 머리가 빠근했다.

그 후로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나는 약속도 미루고 간다. 심

지어 회사 모범 사원으로 공짜로 해외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포기하고 처가 모임에 참석한 적도 있다.

이왕이면 가장 먼저 도착해서 장인 장모님 앞에서 “뭘 도와드릴 거 없어요?” 자꾸 물어보면 “역시 우리 막내사위가 최고~”라며 나를 치켜세워 주신다. 그럼 옆에서 처형들은 본인의 남편들에게 “봐봐~ 저기 막내사위 하는 거. 당신도 처가 와서 술 먹고 헛소리만 하지 말고 저기 제부처럼 적극적으로 좀 하란 말이야.”

“우리 혜은이는 정말 남자 하나는 잘 만났다니까. 혜은아~ 네가 우리 육 공주 중에 젤로 출세했다.”

그 소리에 나는 또 어깨가 으쓱~ 이 맛에 처가 온다 아입니다.

아내와 다툼 날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둘째 처형 집으로 가면 언제든 오라며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나랑 유머 코드가 제일 잘 맞는 넷째 처형 집에 가면 “내가 우리 동생을 잘못 키웠네. 제부 개 데리고 사느라 힘들지? 내가 미안해” 이러면서 무조건 내편을 들어주실 때도 많다.

집안에 막내라서 말할 기회는 별로 없지만 가족들이 서로 다 의견이 다를 때는 처형들이 가장 나이 어린 나에게 최후 결정권을 맡겨주신다.

“무조건 막내 제부 의견에 따라!”

“그래~ 다들 탄소리하지 마. 제부가 딱 정해!”

이러면서 캐스팅 보트를 맡겨주실 땐 도파민 팍! 기분이 정말 짜지게 좋다.

고로 남자들은 처형 처제들한테 잘 보여야 한다. 아낌없이 투자하고 기분 좋게 모시자. 그렇게 가정의 화목, 평화를 지켜내고 나의 수명을 연장하자.

여자는 모른다

## 가까이 더 가까이

애청자

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 남성시대를 애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까불까불하고 불임성 있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친화력은 그 누구보다 자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친화력이 유일하게 먹히지 않았던 분이 계셨으니 바로 우리 장인어른! 제가 결혼 허락받으러 아내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애기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보니까 인물도 흰하니 좋네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말씀 편히 해주세요.”

“그렇까?”

“그럼요. 근데 저 온다고 이렇게 많이 준비하신 거예요? 전 그

냥 국에 김치만 있어도 밥 한 공기는 똑딱인데 저 때문에 고생 너무 많이 하셨겠어요.”

“사위는 백년손님이라는데 어떻게 대충 대접을 해. 그리고 당신도 사위한테 인사 좀 해. 왜 멀뚱멀뚱 가만히 있어요?”

그러자 장인어른의 대답은 아주 간결했습니다.

“반가워요.”

그걸로 끝! 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썩싸게 다시 대화를 이어갔죠.

“아버님~ 제가 많이 부족한데도 희은이하고 결혼을 승낙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절 아들처럼 편히 대해주세요. 말씀도 편히 해주시고요.”

그러자 30년 이상 직업 군인으로 군복무를 하셨다는 장인어른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낮가림이 좀 있어요. 말은 천천히 놓을 테니까 재촉하지 마요.”

무뚝뚝하실 거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실제로 봐니까 제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나? 걱정이 될 정도였죠.

“에이~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아빠가 원래 좀 무뚝뚝하다니까. 말수가 없으셔서 그래. 나한테는 사위감 맘에 든다고 하셨다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 안심이 됐습니다. 다행히 결혼 승낙도 받았고 결혼식도 올렸지요. 그럼 이제 장인어른과의 관계는 좀 편해졌나고요? 아니요! 그대로였습니다.

처가와 저희 신혼집이 차로 15분 거리여서 장모님이 맛있는 음



식을 만드는 날에는 늘 우리 부부를 집으로 초대해 주시는데 장모님과 정말 모자지간처럼 편해져서 처가에 가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지만 문제는 장인어른. 제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어서 뭔가 걱정하거나 긴장하면 배가 살살 아파오는데 장인어른만 생각하면 앞으로 펼쳐질 어색한 상황에 아랫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장인어른과 한 발짝 더 편한 사이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처가에 방문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위 왔습니다. 오늘 어머님의 필살기, 동태찌개 하셨다는 소문 듣고 맨발로 뛰어 올라다가 예의 바르게 양말 신고 왔습니다.”

“어쨌~ 우리 사위는 말도 이쁘게 하지. 칼칼한 동태찌개에 우리 사위 좋아하는 잡채까지 할 거니까 실컷 먹고 가게.”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님, 얼마 전에 감기 걸리신 건 좀 어떠세요? 몸은 괜찮아지셨어요?”

“뭘 감기 갖고 그리 호들갑을 떠나. 자네나 건강관리 잘 챙기게!”

장인어른 말씀엔 어떤 반응을 해야 할 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눈알만 떼굴떼굴 굴리던 그때 장모님께서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잡채를 한다면서 젤 중요한 당면을 안 사왔네. 잠깐 마트 좀 다녀와야겠어.”

장모님 말씀에 믿고 있던 아내마저 “엄마, 그러면 나도 마트 가자. 오빠, 나 엄마랑 마트 좀 다녀올게. 아빠랑 티브이 보고 있어. 알겠지?” 합니다.

그 순간 심장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더군요. 절박한 심정으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아~ 힘들게 뭐 하러 마트를 다시 가요. 그냥 잡채는 다음에 먹죠.”

근데 눈치 없는 아내는 “아니 내가 과일도 좀 먹고 싶어서 간 김에 좀 사올라고. 올 때 사 온다는 걸 깜박했는데 잘 됐어.”

“그럼 내 차로 가자. 과일 그거 무겁잖아.”

“집 앞인데 무슨 차를 끌고 가? 잡채하고 체리 한 통만 사 올 거야. 아빠랑 그냥 티브이 보고 있어.”

그렇게 전 장인어른과 단둘이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민감한 장에선 슬슬 신호가 오기 시작했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더욱 바짝 차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버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전국 노래자랑 좋아하시죠? 근데 예전에 송해 아저씨가 진행했을 때가 진짜 재미있었는데 말이죠.”

“남희석이기도 잘한다. 아주 능청맞아.”

“아, 그렇군요. 맞아요. 남희석도 진짜 진행 잘하죠.”

그렇게 대화는 순식간에 끝. 꿀렁거리는 장과 흘러내리는 식은땀을 참으며 고요 속에서 아버님과 티브이를 보고 있는데 이번엔 웬일로 갑자기 아버님께서 제게 질문하셨습니다.

“성질 사나운 우리 희은이 데리고 살기 힘들지?”

저는 단순히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대화가 또 금방 끝나버릴까 봐 용기 내어 아버님께 농담을 건네 보기로 했습니다.

“어휴~ 아버님, 말도 마세요. 가끔은 살쾅이로 보일 때도 있나니까요? 하하하~”

그때 저는 웃고 있었지만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과연 내 농담이 먹혔을까?’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온 신경은 아버님에게 집중되어 있던 그때 아버님이 답하셨습니다.

“개가 내 성격을 닮았어. 다 내 탓이지 뭐.”

오, 노! 저는 제 농담이 완전 무리수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뇨~ 그런 뜻이나 아니라고요. 그냥 희은이가 자기주장이 분명하잖아요. 그게 또 매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재밌다고, 제가 희은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다들 이미 뭐 아시니까 그냥 해본 말입니다.”

“그래도 개가 속마음은 여리니까 자네가 힘들어도 이해를 좀 하게.”

“아니~ 장인어른, 저 힘들지 않습니다. 희은이가 얼마나 귀여운데요.”

그리고 또 어색한 침묵. 그때 마침 구세주처럼 아내가 전화했습니다.

“희은아~ 왜 안 와?”

“오빠~ 여기 집 앞 마트에서 체리를 너무 비싸게 팔아. 그래서 지금 엄마랑 다른 식자재 마트 가고 있거든.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아. 오빠, 배 많이 안 고프지?”

“고파! 배 많이 고파! 그거 체리 얼마나 한다고 힘들게 다른 데까지 가고 그래. 나 지금 엄청 배고파. 그러니까 제발 빨리 와줘.”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님도 저와의 시간이 불편하셨는지 갑자기 외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어디 가시게요?”

“어~ 내가 요즘 자전거를 타. 잠깐 운동 좀 하고 올 테니까 자넨

집에서 편히 쉬고 있게.”

아버님은 창고에서 자전거를 꺼냈고 번개보다 빠른 속도로 운동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한 삼십 분 처가에서 혼자 편히 쉬었는데 장을 보고 온 아내와 장모님이 아버님을 찾더라고요요.

“아빠는?”

“장인어른께서 요즘 자전거 타신다면서요? 저녁 드시기 전에 잠깐 운동하신다고.”

“자전거? 갑자기 자전거가 어딴다고?”

“저기 창고에서 꺼내시던데요?”

“에? 그거 하도 안 타서 바퀴에 바람도 다 빠져 있을 텐데. 나는 그제 집에 있는 것도 까먹었어. 근데 그 양반이 그걸 들고 나갔어? 갑자기?”

“아빠 뭐야. 사위랑 단둘이 있는 게 불편하셨나?”

아버님은 그렇게 바람 빠진 자전거를 끌고 나가서 약 한 시간 후에 돌아오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라이딩을 했다면 아무렇지 않은 척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장인어른 참 따뜻하신 분입니다. 말수만 적으실 뿐 저와 희은이를 많이 사랑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엔 아버님과 계양산을 등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버님은 혼자 가는 게 편하다고 하셨지만 제가 떼를 써서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아버님과 친해지고 싶어서요. 근데 벌써부터 아랫배가 살살 아파오네요. 그래도 아버지, 제가 포기하지 않고 아버님께 다가가겠습니다. 아버님도 제게 조금만 더 와주시겠어요? 조금만~ 조금만 더요.

여자는 모른다

## 21세기 강태공

애청자

저는 아내와 재혼 부부인데 결혼에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다 보니 서로 살림을 합치면서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어요.

“여보, 나랑 살면서 꼭 하고 싶은 거 있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봐. 내가 다 들어줄게.”

“진짜? 음~ 나는 경치 좋은 곳에 있는 전국 사찰을 찾아가서 구경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싶어. 안 가본 전국 유명한 명소들도 다 가보고 싶고 여보가 나 진짜로 다 데려가 줄 거야?”

“그럼! 당연하지. 어디든 말만 해. 내가 다 데려가 줄게.”

그렇게 큰소리 뽕뽕 쳐놓고 바쁘다는 핑계로 지난 7년간 가까운 동네 사찰 한번 데려간 게 전부입니다. 그럼 주말마다 저는 대체 뭘 했냐고요? 저는 배꼽 친구 녀석이랑 동네 저수지나 합천댐에서 낚시를 즐겼습니다.

그날도 토요일 주말이었어요. 친구랑 합천댐 민물낚시 약속을 하고 룰루랄라 장비를 챙기는데 아내가 말을 걸더군요.

“여보, 나 몸이 으슬으슬한 게 몸살인가 봐. 오늘은 낚시 가지 말고 집에 있어 줘. 나 약도 좀 사다 주고. 응?”

“많이 아파? 아 근데 일중이 녀석이랑 진짜 옛날에 잡아놓은 약속인데 요 앞에 합천댐. 그 녀석이 약속 깨면 가만 안 둔다고 며칠 전부터 몇 번씩 확인했거든. 그래서 말인데 여보, 내가 지금 빨리 가서 살짝 얼굴만 비추고 금방 올게. 미안~”

“마누라 송장 치르고 병풍 앞에서 후회의 눈물 흘리지 말고 빨리 낚시 가방 내려놔! 빨리!”

“아~ 여보~ 남자가 약속은 지켜야지. 일중이가 선약이잖아. 내가 최대한 빨리 갔다 올게. 혹시 문제 생기면 바로 전화해. 여보 미안해. 나 간다~ 진짜 미안~”

그렇게 아내의 따가운 눈초리를 외면하고 집을 빠져나와 합천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친구가 안 보이더군요.

“여보세요? 일중아, 너 어디야?”

“아, 쏘리쏘리! 막 나오는데 거래처 배달이 들어와서 내가 눈썹이 휘날리게 총알 배달하고 바로 달려갈게. 미안, 먼저 낚시하고 있어. 형님이 금방 갈게.”

나는 아픈 아내도 버리고 왔는데 나쁜 자식~ 친구를 욕하며 혼자 덩그러니 낚시를 하는데 그래도 웬일이지 그날따라 손맛이 최고였습니다. 낚싯대를 던지는 족족 큼직한 붕어, 잉어, 배스... 줄줄이 올라왔죠. 기분이 ‘업’ 되어 신이 나서 룰루랄라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고민 끝에 받았습니다.

“야! 당신 지금 거기 어디야? 마누라가 다 죽어가는데 진짜로 낚시하러 가냐? 내가 동네 저수지에 풍덩 빠질 테니까 차라리 날 잡아서 회를 쳐 먹어라! 이 나쁜 놈아! 엉엉엉~”

아내의 우는 소리를 듣는 데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여보, 많이 아파?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긴 한데. 내가 감기 몸살약 사서 금방 갈게. 금방! 알았지?”

전화를 끊고 서둘러 짐을 챙기는데 그때 마침 일중이가 오더군요.

“야, 허당! 많이 잡았냐? 어디 보자, 얼마나 잡았는지?”

일중이는 제가 잡은 어망을 들어 올리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우와! 뭐야? 뭐가 이리 무겁노! 와따~ 어마무시하게 잡았네. 이게 도대체 몇 마리고? 너무 무겁다! 하하~”

친구는 마치 본인이 잡은 양 신나서 망을 들고 이리저리 흔들며 대며 고기를 구경했는데 어망이 오래되어 밑이 삭았었는지 그만, 어망 밑이 다 터지면서 물고기가 저수지로 한꺼번에 주르륵 다 탈출하고야 말았습니다.

“친구야, 낚시터 올 때는 어망 상태도 확인했어야지. 이리 오래 된 어망을 갖고 오면 우짜냐? 아, 진짜 내가 미안하다.”

물고기가 다 도망가고 친구는 미안한지 황설수설 이상한 사과를 하고 아내한테 전화는 계속 오고 낚시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가긴 싫고 머릿속이 뒤죽박죽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야, 그런 상황이었어? 그러면 뭐 걱정을 하노. 당장 횃집 가자. 가서 물고기 종류별로 사고 집에 가서 제수서 뜨끈하게 탕 끓여 주자. 고기는 내가 사줄게. 네가 잡았다고 큰소리쳐라마!”

친구의 리드로 우리는 집에 가는 길 횃집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수조에 온통 바닷물고기들. 민물고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광어, 우럭 등 비교적 저렴한 물고기를 담고 큼직한 감성 돔도 두 마리.

“일중아,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만 답아라.”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사장님, 얼마요? 30만 원이요. 여기 있습니다.”

“야~ 너무 많이 나왔어. 돔은 그냥 빼자.”

“됐다, 마! 치워라! 빨리 가자. 제수씨 기다린다.”



친구에게 선물로 받은 고기를 들고 동네 약국을 찾아 헤매다 공포의 아내 전화를 몇 번 더 받고서야 집에 도착.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던 아내는 몸을 일으키며 사자후를 하려다 같이 온 친구를 봤습니다.

“사랑하는 제수씨, 저도 왔습시다요~”

“아, 같이 오셨어요. 호호호~”

“마, 제수씨가 아프시다는데 당연히 제가 와 봐야죠. 마! 감기에 는요 큰 물고기 매운탕이 최고 아닙니까. 제가 빨리 끓여서 대접 할 테니까 제수씨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라는 친구의 말에도 궁금한 건지 불안한 건지 주방에 따라 들어가 어망에 있는 물고기를 보다 물었습니다.

“와~ 엄청 많이 잡으셨네요. 근데 이건 감성돔? 합천댐에 감성돔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얼음! 녀석 좋은 일중이는,

“하하하! 제수씨, 합천댐이 무지 크잖아요. 별놈의 물고기가 다 살아요.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고 제가 금방 회 떠 드릴 테니까 시원하게 드시면 감기 마, 꼭 떨어집니다. 앉아계세요. 금방 대령하겠습니다. 하하하~”

그렇게 친구가 떠 준 회와 매운탕을 맛나게 드신 아내는 다행히 감기약 먹고 얼마 안 가서 감기가 싹 나았습니다. 이제라도 아내에게 고백하고 싶어요.

“여보, 당신도 사실 알지? 합천댐엔 감성돔, 광어, 우럭 같은 바닷물고기 안 살아. 내가 앞으로는 낚시를 딱 끊겠다고 맹세는 못 하지만 당신이 가고 싶은 곳 이제 진짜루 많이 많이 보여줄게. 못난 나랑 살아줘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사랑 사랑 사랑

# 어느 도어맨의 일기

애청자

저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도어맨’으로 일하고 있는 당당이입니다. ‘도어맨’ 많이 들어보셨지요? 손님들이 호텔에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출입문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손님이 타신 차량이 도착하면 차 문을 직접 열어드리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반갑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곤 현관이 혼잡하지 않도록 주정차 관리를 해야 하고요. ‘벨맨’이 바쁠 때는 고객님의 짐을 1층 데스크까지 직접 옮겨드리기도 하지요. 이것도 결국 사람 눈치를 보는 일이라 경력이 쌓일수록 대충 얼굴만 봐도 ‘어떤 성격이겠다~’ 하고 예상이 되더군요. 그 눈빛과 인상이 주는 느낌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재작년 여름, 그녀를 처음 만난 순간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호텔에서 만난 손님들과 직원들을 통틀어 그렇게 인상이



좋은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녀의 이름은 현주. 저보다 여섯 살이 어린데 다른 호텔에서 일하던 경력을 살려 이곳으로 이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따뜻한 목소리만큼이나 마음씨도 무척 고맙습니다.

“선배님~ 많이 힘드시죠? 여기는 그늘도 없는데 하루 종일 이 더운 데서 정말 대단하세요.”

사실 ‘도어맨’은 로비에서 웅기종기 모여 있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현관 앞을 지켜야 하다 보니 ‘외톨이’ 신세에 가깝거든요. 그런 저에게 다가와 자주 말을 건네주는 그녀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

룹니다.

여름에는 땀이 뻘뻘 나고 겨울에는 찬바람에 손발이 얼어붙어도 잘 닦인 유리창 너머로 그녀가 미소를 보여줄 때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일할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를 향한 제 마음은 일종의 호기심과 고마움 그리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약간의 호감에 불과했지요. 그녀를 향한 제 마음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 재작년 겨울 부터였습니다. 눈이 펄펄 내리던 어느 날 그녀를 달리 보게 된 ‘한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날은 제가 자정까지 근무하는 날이었는데 저녁 열한 시쯤 과장님이 급히 내려와서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영준 씨, 내가 부탁이 있는데 내일 ‘새벽 4시’까지 나와 줄 수 있나?”

“네? 4시요? 제가 집에 도착하면 새벽 1시인데 그럼 밤을 새우고 출근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좀 이따 새벽에 눈이 많이 온대잖아. 손님들 오기 전에 제설 작업해야 하지 않겠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사실상 말이 부탁이지 거의 통보에 가까웠어요. 저는 ‘그래~ 잠은 내일 저녁에 푹 자면 되지~’ 하면서도 괜히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슬슬 눈발이 흩날리고 저는 푹푹 한숨을 내쉬는데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현주 씨가 슬쩍 고개를 내미시더라고요.

“선배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까 과장님이 뭐 부탁하시는 것 같던데.”

멀리서 제 표정을 읽고 손님이 없는 틈을 타 말을 걸어주는 그

녀의 모습에 제 마음이 스르륵 녹아버렸지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넋두리처럼 하소연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러게요. 과장님 너무하셨다. 선배님, 잠깐 만요~” 하면서 로비로 급히 들어가더군요. 그러고는 30분 후 그녀가 아주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제게 걸어오더니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선배님, 내일 새벽 출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과장님한테 근무표 좀 보시라고 선배님이 다시 나오는 거 부당하다고 다른 직원분께 부탁해 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도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현주 씨 뒤로 후광이 막 비치면서 눈이 찡하게 부셨습니다. 그때의 현주 씨는 꼭 ‘다윗’ 같았어요. 고과를 매기는 무서운 ‘골리앗 과장님’을 쓰러뜨린 멋있는 ‘다윗’ 그 자체였습니다. 저보다 키는 한참 더 작지만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지요.

그날 이후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전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더 자주 그녀를 눈길로 좇으며 저도 모르게 실실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린 거였지요. 그녀를 사랑하게 된 순간부터 저도 그녀를 닮고 싶은 마음에 더욱 ‘좋은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인사는 더 밝게! 제 담당이 아닌 일도 적극적으로 살피고 근무 시간 외에도 주변을 돕는 게 습관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런 노력이 엿보였는지 과장님께서도 저를 더 좋게 평가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영준 씨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손님들이 영준 씨 앞으로 ‘칭

찬 카드'를 많이 썼더라고.”

“정말요? 하하~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기분이 계속 좋네요.”

그러자 과장님께서 대뜸 로비 쪽으로 나 있는 유리창을 가리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데스크에 현주 씨 있지? 현주 씨도 곧 남자친구랑 결혼할 것 같다고 아주 싱글벙글이야. 영준 씨는 만나는 사람 없어?”

과장님이 던진 ‘핵폭탄급 소식’에 저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결혼이라니요. 이제야 조금 허물없이 친해졌구나 싶은 그녀가 결혼한다니요. 사실 현주 씨와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현관 앞에서 홀로 자리를 지켜야 하는 ‘도어맨’이 데스크 직원과 대화를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그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녀를 마음에 품어왔던 거지요.

그날 이후 저는 그녀를 향한 제 마음을 차근차근 정리해 갔습니다. 몸이 불편한 고객님께서 방문하시면 싱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현관까지 나와 뵈던 현주 씨. 회전문을 놀이기구 삼아 위험하게 장난을 치는 어린이에게는 허리를 낮춰 ‘조심해야 한다’고 다정하게 일러주던 현주 씨. 그녀를 보며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배울 수 있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그녀가 반갑게 인사하며 제게 청첩장을 건네줬네요. 현주 씨가 지금껏 살아온 날의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느끼며 앞으로의 삶을 유영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현관에서 체크인하시는 고객님의 짐을 들고 그녀를 향한 존경심으로 데스크로 달려가는 어느 ‘도어맨’의 일기였습니다.

## 그랬으면 했는데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2025년을 보내며 여성시대엔 상복이 넘쳤다. 12월 마지막 주에 인수진 작가가 라디오 작가상을, 옆지기 김일중 씨가 라디오 부문 우수상을 받았고, 12월 첫날부터 나는 서울시 문화상을(방송 쪽에는 수상 기회가 별로 없고 클래식 종사자들이 많이 탄다는 데…), 이어서 방송통신미디어협회에서 주는 공로상을 받았다. 그리고 수출역군들을 모신 자리에서 노래하고 군포문화재단 주관으로 세종국악관현악단과 협연했고, 양희은 콘서트 연주팀과의 연습(12월 연주인들 일정 잡기는 별 따기), 또 틈틈이 몇 차례 수시로 한의원을 찾아가 부항도 뜨고 침도 맞았다.

그렇게 뛰어다닌 12월이 갔다. 우리 당당이님들이 콘서트 앞두고 감기 걸리면 안 된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감기 걱정보다 6년 만의 공연이라 걱정하며 가슴이 두근 반, 세근 반, 울렁증이 생겼다. 노래 사이에 정겨운 일상의 얘기도 챙겨야 했고, 무대의 상 준비로 하여간에 부산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큰 공연장에 신청했을 때 관객 연령대가

60대, 70대라 고위험군으로 지목되어 반려되었다. 한 번 꺾이자 ‘내 공연 연령대가 갑자기 MZ로 바뀔 리도 없고..’ 엄마 가시고는 의욕조차 없었다. 살아있을 때 힘을 줄 테니 나 떠나기 전까지는 하고픈 대로 양껏 하라는 엄마였다. 생각해 보면 떠나신 후에 비로소 독립된 한 사람이 된 것 같다. 그 품 안, 그 슬하를 벗어나 자기 길을 스스로 알아서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생방송하고 목요일마다 한 ‘생활의 달인’ 내레이션 일은 10년이 되어 그만두었다. 말하는 일 중 제일 힘이 들었다. 보통의 다큐와 달리 빠른 속도로 집중된 에너지를 쏟는 게 조금 벅차긴 했다.

그리고 2025년을 보내는 12월 31일 밤 12시에 보신각 타종을 했다. 가로막는 건물이 없는 모퉁이라 사방에서 불어오는 선달그믐의 바람을 피할 길 없었다. 한복을 입기로 하고 박솔녀 여사께 누비 두루마기와 조바위까지 부탁드렸다. 재작년엔 고두심 씨가 한복을 입었는데 내복뿐 아니라 붙이는 핫팩까지 도배해야 견딜 수 있다고 했다.

‘아이쿠~ 1월 1일도 생방송 해야 하는데 타종 끝내고 집에 가면 몇 시나 될까? 추위에 떨고 편히 잠이 올까?’ 걱정도 했다.

뉴욕 살 때도 타임스퀘어 연말 카운트다운 볼드랍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따뜻한 집에서 TV로만 보았다. 그래서 가끔 그 현장에, 사람 가득한 곳에 입김 폴폴 내뿜어지는 곳에, 어깨가 부딪히는 거리를 한 번 걸어라도 보고 싶었다. 그랬었는데 보신각 타종 현장에서 타종을 하다니! 한 번쯤 그랬으면 했던 일이 늘그막에 이루어지다니 오래 살고 볼 일인가!



## 2026년 새해 다짐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2026년이다. 매년 새해가 되면 비슷한 다짐을 되풀이했지만, 늘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곤 이래서 못했어, 저래서 못했지 하며 스스로에게 관대했다. 그럼에도 이렇게 또 새해 다짐을 한다. 이번엔 다를 것이다. 지난 세월 실패했었던 패턴을 충분히 알고 있다. 너무 거창했거나, 쉽게 지쳐버리거나 무리한 계획이었다. 한 해의 목표를 마치 한 달 안에 이를 것처럼 덤볐다가 포기하고 마는 식이었다. 일 년은 12월까지 있는데 말이다. 그러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조금씩, 지치면 잠시 숨 좀 고르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2026년을 살아갈 네 가지 다짐을 적어본다.

하나, 주 3일 운동하기.

역시나 첫 번째는 건강과 관련된 운동이다. 하지만 늘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장 쉽게 미뤄왔던 일이다. 지난 46년간 내 신체 중에 가장 무거운 곳이 엉덩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깨달았다. 그러니 엉덩이만 일으켜 세우면 반은 성공이다. 앉고 싶고

눅고 싶어도 일단 일어나서 밖으로, 헬스장으로 고! 그다음은 알아서 하게 되어있다. 2026년에는 주 3일 짧아도 좋으니 꾸준히 몸을 움직이겠다. 헬스장이든 산책이든 홈 트레이닝이든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먹었으니 움직인다. 단순하게 생각하자.

하나, 주 3일 술 마시기.

반드시 주 3일 술을 마시겠다는 다짐보다는 그 이상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 주량이 세지 않다는 핑계로 조금씩 자주 마셨던 과거를 반성한다. 결국 의지의 문제겠지만 이것 또한 다행히 주량이 세지 않아 많이 마시지는 않지만 습관적인 한두 잔의 술을 줄 여보자는 것이다. 주 3일이라는 기준은 나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삶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기 위한 약속이다.

하나, 일본어 공부하기.

30년 넘게 배워온 영어도 익숙지 않지만 그래도 새해엔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 가까운 곳이기에 가족과 함께 일본 여행도 종종 가지만 그네들과 내가 서로 짧은 영어로 대화

하는 건 이제 그만하고 싶다. 최소한 그들의 글을 읽고 맘 편히 음식 주문과 질문을 하고 싶다. 2026년에는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 하루에 단어 몇 개, 짧은 문장 하나라도 괜찮다. 언어 공부라는 건 알다시피 꾸준함 아니겠는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변 지인이 영어보다 일본어가 우리말과 문장구조가 비슷하여 훨씬 배우기 쉽다고 한 말에 용기를 내어본다.

하나, 일기 쓰기.

아마 이 다짐을 실천하기에 가장 어려울 수 있다. 당연히 매일 쓰겠다는 말은 못 한다. 또한 거창한 글을 쓰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저 오늘 어떤 기분이었는지,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아쉬웠는지 솔직하게 적어보겠다. 그러다 보면 어제 뭐 했는지 일주일 전 무엇이 좋고 한 달 전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힘든 날의 감정도, 별일 없던 평범한 하루도 모두 기록하며 나의 2026년을 남기고 싶다. 그렇게 짧게라도 글을 쓰고 일기가 쌓이면 월간 여성시대를 수월하게 쓸 수 있는 날도 오겠지.

이 네 가지 다짐은 모두 나를 더 건강하고, 또 2025년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나로 만들어 줄 것이다. 지키지 못하는 날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올해도 그냥저냥 살자라는 안일함 말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많은 당당이들 앞에서 다짐을 했으니 2026년의 끝에서 “그래도 잘 해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의 다짐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지켜나가고 싶다. 2026년 말띠해답게 신나게 달려보자!

# IBK로 국민연금 만나고 일상이 즐거워졌다

국민연금과 IBK가 만나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IBK로 첫 국민연금 받거나  
IBK로 국민연금 계좌 바꾸면  
최대 7만원의 혜택이

쉽고 편하게 IBK로  
든든하게 IBK로

개인금융도 역시, IBK



IBK 앱에서 쉽게, 지점에서 편하게  
국민연금 입금계좌 변경 서비스



최대 7만원의 혜택을 받으세요  
국민연금 입금계좌 변경 이벤트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3876호(2025.06.13)[유효기간:2026.06.12]

· 이벤트에 대한 세부 내용과 조건은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고,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중앙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실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



IBK 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 내가 원하던 i-ONE의 등장



ALL NEW i-ONE Bank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7972호(2025.11.21) 유효기간(2026.11.20)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